

儀旺文化

UIWANG CULTURE

2호



儀旺文化院
鄉土文化研究所

儀旺文化

UIWANG CULTURE

2호



儀旺文化院
鄉土文化研究所



표지그림

백운사

백운사는 백운산 능선 왕곡동 1-1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경기도지정 제36호의 천통 사찰로서 고종 32년(1895) 청풍 김씨 종중에서 세운 것이다. 원래의 백운사는 19세기말에 창건되었다고 한다. 현재의 백운사에서 3km정도 올라간 지점에 있었으나 고종 31년(1894)신불로 소실되어 현재의 자리로 옮겨 새로 지었다.



제목위호

박용빈

경기도 서예대전 초대작가 (서협)
사단법인 한국서예협회 안양지회 (안양, 과천)
(현) 덕왕문화원 서예감사 (2002. 10 ~)

儀旺文化

2호

목차

⑤ 5 발간사 - 박용하 문화원 원장

⑥ 6 시민현장

⑦ 7 첫째마당 - 의왕문화원의 사계

- 8 1. 단오제
- 10 2. 서예대전 작품
- 12 3. 사군자 작품
- 14 4. 사진으로 본 2003년도 문화유적답사, 여름갯벌답사, '의왕의 인물과 유적을 찾아서 답사' 서예대전 작품, 사군자 사진, 단오제 사진, 문화제
- 17 5. 2003년도 문화학교 수료식 및 작품발표회

⑨ 19 둘째마당 - 논단

- 20 1. '의왕' 명칭에 대한 漢字 表記 考察 - 이명규
- 36 2. 향토관 소개 - 이충훈
- 41 3. 향토(지역)자료 수집의 대상과 목적 - 지수걸
- 50 4. 의왕시 문화정책과 행정의 문화화 - 조창연

⑩ 57 셋째마당 - 시민의 글 모음

- 58 1. 부채 - 서경자
- 59 2. 나비의 여행 - 주영애
- 60 3. 김치를 썰며 - 서유순
- 62 4. 의자 - 서유순

답사후기

- 65 1. 문화 역사를 알고 난 후 우리 시를 사랑하는 마음이 배가 되었어요 - 신정애
- 67 2. 가을 찾아서 - 조영선
- 69 3. 나의 사랑 의왕 - 임영희

71 시사 진행과정(중간보고서) - 박철하

75 문화원 사업실적 보고

78 문화원 임원(이사회)명단

86 향토문화연구소 위원 명단

90 편찬 후기

편찬위원 명단

발 간 사



눈부신 햇살과 맑은 바람이 스며드는 행복한 계절입니다. 그 빛과 풍강이 스며드는 가운데 호기심 가득한 눈망울로 우리 의왕시 곳곳을 둘러보는 모든 분들의 생명력이 느껴집니다.

그 동안 역사와 문화는 짧지만 우리 의왕시를 찾는 분들이나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살기 좋은 의왕시를 홍보하기에 부단히 애를 써 왔습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인이나 단체가 소임을 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하나로 어우러져 이 일을 완수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왕시민 여러분!

그리고 문화와 예술에 종사하시고 항상 관심을 가지고 의왕시 발전에 노심초사하시는 여러분, 문화와 예술은 그 지역의 얼굴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문화를 발굴하고 이것을 계승, 발전시켜 앞으로 우리 후세에 훌륭한 문화예술을, 역사의 장래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의왕문화원이 즐거움과 행복을 선사하는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의왕시민 여러분!

우리 의왕문화가 앞으로 지금까지 걸어온 크고 작은 발자취이며 귀중한 역사책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나아갑시다.

여러분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고 소원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왕문화원장 박 용 하

의 왕 시 민 현 장

백운산의 맑은 정기와 청계산의 높은 기상을 이어 받은 우리 의왕시민은
정의와 평화의 봉사자로서, 내 고장 의왕을 지상 낙원의 값진 터전으로
만들고자 뜻을 모은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현장을 마련하여 마음에 깊이 새겨 다짐한다.

1. 우리는 의왕의 이름 따라 참되고 올바른 길을 힘차게 걷는다.
2. 하늘이 주신 정겨운 내 고장 자연을 몸소 배우며 청성껏 가꾼다.
3. 믿음과 최선을 서로 화목하고 돕는 정신을 실행한다.
4. 근면과 검소로 풍요롭고 알찬 생활을 이룩하는데 앞장선다.
5. 어른은 어린이에게 꿈을 키워주고 자라나는 세대는 웃어른을 섬기는
심성을 닦는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의왕인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내일의 이상적
한국인으로서 세계문화 창출에 이바지하는 보람으로 오늘을 기쁘게 다져
나간다.



백운산 일출



청 재 마 당



봉산탈춤의 망양반

단오제

서예대전 작품

시군자

서예대전

2003 문화유적답사 (경기도 파주시)

2003 여름 갯벌탐사 (제부도)

2003 '의왕의 인물과 유적을 찾아서' 관내 답사현장





흥겨운 한 마당 축제

단오는 음력 5월 5일로 1년 중에서 가장 양기가 왕성한 날이라고 해서 설날, 추석과 함께 3대 명절중의 하나로 여겨 전국적으로 각종 민속행사를 열어 시민들이 함께 즐거운 축제를 만드는 날이기도 하다.

또한 단오날 밥을 수리(물의 여울)에 던져 굴원을 제사 지내는 풍속도 있어 '수릿날'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단오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오기 전 초여름의 계절이며 모내기를 끝내고 풍년을 기원하는 기풍제이기도 하다.

2003년 6월 고천 레포츠 공원에서 의왕시와 의왕시 의회가 후원하여 의왕문화원이 주관한 의왕단오제는 시민 1,100여명이 모여 즐거운 한때를 보낸 축제였다. 개막전 행사로 의왕 농협 풍물단이 길놀이로 하였고 이어 개막행사로 민요, 무용, 소년소녀합창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팔씨름, 씨름, 전통축구, 널뛰기, 전통투호 등 각종행사가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속에서 이루어졌다



흥겨운 풍물놀이 (농협풍물단)



시민들의 행복과 안정을 비는 단오제사, 축문낭독 모습



동별 팔씨름 경연을...

제삼회 백운서예대전

제삼회 백운서예대전

3번째 맞는 백운서예대전. 지난해보다 행사 규모나 내실 면에서 훌륭한 서예대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준비 과정을 거치었다. 2003년 8월 초부터 홍보하여 성인 41명, 중고등부 34명, 초등부 221명 등 총 296명이 작품등록을 하였다. 우수작품 선별을 위하여 심사위원 3분을 초빙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친 결과 성인부 대상에 강욱규씨를 비롯하여 중, 고등부, 초등부 등 우수작품을 결정하여 9월 27일 취호를 거쳐 29일에 문화원 대강당에서 시상식을 하였다.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의왕시, 의왕시의회, 군포교육청, 전국문화원연합회, 전국문화원 연합회 경기도지회가 후원하여 대 성황리에 행사를 마치었다.

수상한 작품은 이 후 문화원 주차장과 관람실에서 전시회를 가졌으며 회원과 시민들의 많은 관람이 이어졌다.

서예부문 대상 작품

⑥ 성인부 대상
(경기도지사상)

말없는 치목속에 바
라보는 따스한느낌

계미년임축소정강옥국

광복군
(경기도 안성시)

④ 초등부 대상
(경기도교육감상)

成德君子
千變萬化

五全初六年洪元基

호원기
(오전초등학교 6)

⑥ 중고등부 대상
(경기도교육감상)

장나리노관공발보리발회관이랑구름
드름어늘이으며늘늘늘늘양때어리회회
랑한번만어드찰찰늘치불바나여

2009. 10. 25. 10:30

사군자, 산수화 부문 각 단체장상 수상

❖ 최우수상

(의왕시장상)



❖ 우수상

(문화원 연합회장상)



❖ 장려상

(의왕시의회의장상)





출품된 작품을 차기동(석곡) 심사위원장, 문관호(소목현) 심사위원, 채순홍(소현)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있다



2003. 9. 29
시상식이 끝난 다음 전시실에서 다과회를 갖고 있다

2003 문화유적답사 (경기도 파주시)



궁서박물관 : 유영기(궁시장)
국가 지정문화재로 유명기(궁시장)씨가 대대로 이어온 박물관을 리모델하여 개관하였다



통일을 염원하는 동포들의 한을 달래고 기리기 위해 건립된 망배단 앞에서...

2003년 여름 갯벌탐사 (제부도)



경기도 화성(제부도)으로 회원 및 가족 91명(차량 3대)이 참가하여 갯벌탐사를 하였다. 박용하 의왕문화원 원장께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물이 빠진 후 갯벌로 조개잡이를 나가는 회원들...



제부도 근교의 염전을 찾아서 기념촬영을 찰칵 ^^

2003 '의왕의 인물과 유적을 찾아서'



의왕시 부곡동 안자묘 앞에서 기념촬영



청계동 채세영(기사관)묘를 찾아서...



2003년 9월 10월, 11월 시행한
"의왕의 인물과 유적을 찾아서"
새롭게 부임한 청계사주지 스님과 함께



2003년 시행한 답사
"의왕의 인물과 유적을 찾아서"
양지마을에 있는 국문학의 대가 일석 이희승
선생님의 생가 앞에서

2003년도 문화학교 수료식 및 작품발표회

2003년 12월 27일



2003년도 문화학교 수료식 및 작품발표회

개미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27일 문화학교 강좌 수료생들이 그 동안 갖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발표회와 전시회를 가졌다. 성인부 서예, 사군자, 풍물, 수채화, 민요, 기타 동아리와 아동부 미술, 서예, 한문 등 총 89명이 기관 단체장을 비롯한 가족 200여명을 모시고 문화원 3층 대강당에서 작품발표회를 하였다.

이 날 행사에는 박용하 문화원장이 수료증을 수여하였으며 의왕시장을 포함한 단체장들이 우수한 수료생들에게 표창을 수여하기도 하였다.

2부 행사로는 풍물, 민요, 소년소녀합창단, 기타 동아리 어울림의 공연이 있었으며 2층 문화복지회관에서 서예 및 사군자 그리고 아동부의 미술작품 전시회를 열어 그 동안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2003년도 문화학교 수료식 및 작품발표회



기타동아리 어울림 공연



의왕문화원 소년소녀합창단 공연

돌째마당



은율탈춤의 돌째양반

1. '의왕' 명칭에 대한 漢字 表記 考察-이명균
2. 향토관 소개-이종훈
3. 향토(지역)자료 수집의 대상과 목적-지수걸
4. 의왕시 문화정책과 행정의 문화화-조창연

‘의왕’ 명칭에 대한 漢字 表記 考察

이 명 규 (향토문화연구소장)

(경기중부 경기도문화사학회)

1. 緒

‘의왕’이라는 이름은 조선시대 광주부의 ‘義谷面’과 ‘王倫面’을 근간으로 얻어진 명칭임은 주자의 사실이다.

그런데 이 이름에 대한 한자 표기가 현재 ‘義王市’의 한자 표기에서 모든 ‘義王’으로 자리잡게 된 경위를 밝히는 것은 우리의 생각처럼 그리 간단하지 않다. 1990년대 국가와 차원에서 내부부의 주관하에 당시 한시적 기간을 설정하여 왜해적 지명을 고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데 힘입어 의왕시에서도 2회에 걸쳐 지명위원회를 열어 ‘義王’이 아닌 ‘義王’으로 고치고자 시도했으나 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려 결국 무산된 채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¹⁾

필자는 당시 지명위원회의 한 사람으로 ‘의왕’에 대한 올바른 한자 표기의 기회를 잃게 된 것에 아쉬움을 느껴 그 후 필자 나름대로 문헌과 글씨본을 주된 자료로 하여 이를 학술지면을 통해 단번에 기록으로 간담히 밝힌 바 있다. (출고1997. 132-133및1998. 168-130 참조) 이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소략하게나마 마무리하여 재한명하고자 한다.

다음에 저술의 편의를 위해 본고에 인용한 주된 자료를 제시하여, 필요에 따라 약호를 사용한다.

1) 1995년 전후하여 당시 내부부 고시에 의거하여 왜해적 잔재를 청산하는 의도에 따라 산 정삼에 박은 최말록 제지, 전봉지명 바로잡기 등 몇 항목으로 분류해 일창기간 동안 한시적 기간을 설정하여 모든 뒷받침을 내부부에서 돕기로 했다. 의왕시에서도 鄭友春(정진우 회장)의 건의에 의하여 2회(1차 1995. 11. 28. 및 2차 1998. 3. 27.)의 지명위원회를 열어 ‘의왕’ 표기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나 보류되고 차후로 미루었다. 한번은 황곡려 소재 ‘金仁伯 묘갈’ (1742)에 ‘廣州王倫里’로 표기된 것을 ‘廣州旺倫里’로 표기되었다는 이형상(당시 고촌동 노인회장)님이 제시한 『始興金石總覽』(p. 607) 복사 자료로 보류되었는데, 필자가 직접 탐사하여 碑文을 확인해보니 분명히 ‘王倫’으로 표기되어 있었다. 문제는 복사자료는 碑文을 활자화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오자(誤字)임이 분명하여졌다. 본고에서 밝혀지겠으나 ‘王倫’은 1795년 『圖書乙卯整理備軌』까지, ‘義谷’은 1789년 『戶口總數』까지 중요없이 표기되고 있다. 또 한번의 회의에서도 광무 3(1899)년 청풍김씨 ‘호주 金輔性’씨의 『義谷表』 ‘旺倫面’으로 기록된 사실을 들어 보류하였으나 『華城城 搜獲軌』(1801년) 이후에는 ‘의왕’의 한자표기가 ‘旺倫’으로 중요될 사실은 본고의 서술에서 원명되었지만 당연한 주제라는 취에서 문맥되는 바는 아니었음을 밝혀둔다.

—사목류—

世宗實錄地理志(1454) (조선총독부본)	『世宗地理志』
新增東國輿地勝覽(1530)	『輿地勝覽』
清風金氏世譜(1750)(庚午譜)	『金氏譜』
輿地圖書(1759)	『輿表』
道路歌(1770)	『道路』
戶口總數(1789) (서울대 영인본)	『戶總』
國幸定例(1790)	『國定』
國幸乙卯整理儀軌(1796)	『整理儀軌』
樂城城役儀軌(1801)	『城役儀軌』
南漢志(1846)	『南志』
大東地志(1864)	『大東志』
品山設筆(19C 중엽)	『品山筆(金鑑本所藏)』
廣州府邑誌(1871)	『廣邑誌 A』
朝鮮地誌略(1888)	『朝地略』
漢京叢略(1890)	『漢略』
廣州府邑誌(1899)	『廣邑誌 B』
詳密朝鮮山水圖經(1911)	『朝鮮山水』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1912)	『舊韓名覽』
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1917)	『新舊朝名覽』
朝鮮地誌資料(1919)	『朝地資料』

—지도류—

海東地圖(19C 중엽)	『海東圖』
青邱圖(1834)	『青圖』
大東輿地圖(1861)	『大東圖』
首善全圖(1849 - 1863)	『首善圖』
漢陽京城圖(19세기 말)	『漢京城圖』
星川지도(1911) 장서각 1/50000	『星川圖』
最新朝鮮大地圖(1911) 국립도서관 1/1000000	『朝鮮圖A』
京城府市街圖(1911) 국립도서관 1/6000	『京城圖A』
京城府管内地圖(1918) 국립도서관 1/1000	『京城圖B』
京城지도(1919) 서울대 1/50000	『京城圖C』
軍浦場지도(1919) 서울대 1/50000	『軍浦圖A』

南陽지도(1922) 서울대 1/50000	『南陽圖』
朝鮮大地圖(1928) 국립도서관 1/700000	『朝鮮圖B』
京城지도(1929) 서울대 1/25000	『京城圖B』
朝鮮地方全圖(1932) 국립도서관 1/500000	『朝鮮圖C』
朝鮮地圖(미상) 국립도서관 1/200000	『朝鮮圖D』
軍浦場지도(1935) 서울대 1/25000	『軍浦圖B』

-단석류-

輪山君 李滉墓誌(1547) 의왕시 학의동	『輪山墓誌』
李玉貞墓誌(1584) 의왕시 내촌동	『李玉碑』
蔡世美神道碑(1682) 의왕시 호원동	『墓碑』
淸溪寺事蹟記碑(1689) 의왕시 청계동	『淸溪寺碑』
金仁伯妻安東權氏墓表(1703) 의왕시 고현동	『權氏墓表』
金澄神道碑(.....?) 의왕시 왕곡동	『金澄碑』
朴德男墓誌(1733) 의왕시 학의동	『朴碑』
金仁伯墓誌(1742) 의왕시 왕곡동	『仁伯碑』
金澄神道碑(1744) 의왕시 왕곡동	『金澄碑』
安東權氏(金仁伯 妻)墓誌(1763) 의왕시 고현동	『權氏碑』
金福晉神道碑(1764) 의왕시 왕곡동	『金福碑』
韓翼鳳墓誌(1797) 의왕시 월암동	『韓碑』
朴稷墓誌(1856) 의왕시 월암동	『朴稷碑』
金東健墓誌(1864) 의왕시 고현동	『東健碑』
韓密教墓誌(1892) 의왕시 어동	『密教碑』

1914년 4월 1일 일제는 부령 개111호에 의거 군면 통폐합의 행정구역 개편을 강행하기 이전에는 현재 의왕시 관할 지역은 대체로 廣州郡 의곡면과 왕곡면이 중심 지역이고, 丹谷面의 일부(丹谷, 王草坪, 王草坪) 지역이 된다. 따라서 현 儀旺市 丹谷洞과 草坪洞은 1980년 12월 1일 대통령령 제10050호에 따라 始興郡 儀旺面이 '儀旺邑'으로 승격된 후 1983년 2월 15일 華城郡 丹谷面의 丹谷里와 草坪里가 儀旺邑에 편입될 때 의왕시의 관할 지역으로 비롯된다. 그러므로 '의왕'이라는 이름은 이들 옛 월곡면 지역이 편입되기 이전에 형성된 이름이므로 본고의 '의왕' 지역에 직접 관여되지 않음을 우선 밝혀 둔다.

'의왕'을 유래시킨 조선 시대의 광주군 義谷面과 王倫面은 대체로 현 백운산에서 오라산으로 이어지는 산의 능선을 큰 분계선으로 그 북쪽 지역은 義谷里(현 鶴儀洞의 의악)에 근거하여 義谷面이 유래되었고 그 남쪽 지역은 王倫里(현 華旺谷洞의 월림)를 본대로 한 王倫面이 자리잡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 ‘義谷’이란 표기와 ‘王倫’의 표기가 언제부터 나타나고 그 쓰임이 언제까지 지속되었는지 고찰하고 급기야 ‘儀旺’이라고 표기할 근거를 마련한 까닭은 무엇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모색함으로써 ‘의왕’에 대한 漢字 표기의 원형을 밝히고자 한다.

2

먼저 ‘의왕’의 ‘의’가 ‘義谷’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의’의 출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義谷’이란 지명이 문헌에 보이는 것은 『世宗實錄地理志』(1454) 경상도 慶州府條에 ‘義谷驛’으로 驛院名이기는 하나, 땅이름에 붙여진 것으로는 아마도 이 문헌에 처음 발견되는 이름이 아닐까 한다. 그러나 이 지명은 우리 의왕지역이 아닌 慶州府의 한 지명으로 붙여진 이름에 지나지 않는 참고적인 것이다. 이에 반하여 ‘王倫’이란 지명은 『새증실록지리지』는 물론, 이보다 나중 간행된 新增輿地勝覽에조차도 찾아 보기 어려운 특이한 지명의 하나다.

그런데, 조선시대 경기도 광주부의 한 지명으로 ‘義谷’은 말할 것도 없고, 이 ‘王倫’이 씌인 점은 특기할만한 사실로, ‘王倫’이 지명으로 채택된 이유는 본고의 제한적 지면 탓으로 논의할 여지를 수밖에 없는 여운을 남길 뿐이지 애초에 그 나름대로 지명에 깃들인 의미와 고유한 토착 정신이 있을 것임에 틀림 없다. 그렇지 않고서는 전통적으로 사가에서 부덕태고 쓰기를 거부하고 또 세한명은, 존엄성을 상징하는 ‘임금왕’[王]자를 굳이 지명으로 고집하지 않았으리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이후론 조선시대 상반기 문헌인 『새증실리지』나 『여지승람』 등의 이른바 전통 地志에는 의왕 지명을 지칭하는 ‘義谷’과 ‘王倫’이 등재되지 않아 당시(15세기)의 실재 측보나 기타 이용가능한 문서(현재까지 발굴 안됨)등 문헌류의 실상 여부는 알 길이 고연하나, 천만다행하게도 앞 서두에 제시한 금석문 자료에서 이를 뒷받침할 실재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묘비문이 발견된다.

의왕시 학의동 소재 임영대군의 아들 輪山君 李淵 묘비사(묘표석을 곁한 비석길)에 우선 의왕의 의·자와 뿌리되는 ‘義谷里’에서 ‘義’로 기록된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 의왕의 지명 연원을 밝혀 주는 데 주옥같은 자료로 간주될

일 임영대군의 여덟째 아들인 輪山君 李淵(1462-1547)의 墓誌는 거의 마조되어 전문을 모두 판독하기 어렵다. 미문 중 ‘嶺州下道 義谷里’란 기록은 아직도 읽을 수 있도록 남아 있으나 碑 건립 연대가 미상이었는데, 후손 이항규 씨로부터 당시 족보에 나타난 資料를 입수해 보니 立碑 閔齊仁(1493-1549)撰이므로 輪山君이 후(1547)한 후 立碑이 生存時에 이 墓誌가 세워질 것이 확실하므로 이 비문은 1547에 이루어졌 것으로 믿어진다. 현재까지 儀旺市 관내의 金口洞에 ‘義谷里’가 나타난 것으로는 가장 오래된 금석문 자료로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의왕시 지역의 금석문 자료 중 최상, 최고, 최초로 평가되는 지명 자료가 될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 지명사 연구에 큰 공헌이 되기에 손색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비문뿐 아니라 묘비자체도 이 시기 비석 문양의 학술적 연구에도 좋은 보탬이 되기에 족하리라 생각한다.

묘비 뒷면에 立巖 閔齊仁(1493~1549)撰의 비문이 거의 식별 불가능하게 마모되고 퇴색되어 있으나 다행히 어렵사리 廣州 治西 義谷里를 판독할 수 있다.²⁾ 여기서 첫번째로 짚을 수 있는 ‘義谷里’의 義谷이라는 漢字 표기를 의왕시명 표기 자료로 우선적으로 재취하게 된다.

두번째로 들 수 있는 비문 자료로는 윤산군 묘비보다 37년 뒤에 건립된 의왕시 대촌동(능안마을) 소재의 같은 전주이씨 밀영대군파의 韓山君 李玉貞 墓誌(1584)의 것으로 嗣威君 李寅(1516~1584)이 지은 비문에는 두 군데에 ‘義谷’이 표기되어 있는 것을 지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비문 본문에 해당되는 구절에, 다른 하나는 끝부분 銘詩句節에서 찾을 수 있다. 즉

‘墓于 廣州 治西 義谷里 辰庚戌向之塚’
 ‘義谷之原 有結 有藏’

이 기록은 동일 비문에서 특이하게 ‘義谷’이 두 번 사용된 경우로 이 같은 비문 자료는 의왕 지역 다른 비문에서 쉽게 발견되지 않는 듯하다. 덧붙인다면 이 비문은 시기적으로 오랜 세월의 흐름으로 비문자체가 거의 풍화되고 마모되어 원문을 초상하 말뼌하기 어려우나, 비문의 글씨가 저 유명한 石峯 韓漫(1543~1605)의 11세와 필적을 들어내 주는 면에서 온전히 전해질 수 없음이 안타까울 뿐이다. 비문을 지은이나 글쓴이가 공히 당대의 대가라는 점에서도 기억되는 묘비라는 점에 자극을 받는다.

세째로는 해리개 되는 ‘義谷’ 표기를 찾을 수 있는 묘비로는 의왕시 포일동 소재 左龜算 蔡世英(1490~1568)의 神道碑(1682)를 들 수 있다.

이 비의 비문은 盤城府院君 諱諱政 李恒福(1556~1618)撰이며, 글씨는 府史許穆이 썼으므로 당대의 지장들의 해취가 배어 있는 비라는 점도 그렇기니와, 마석의 남포나 귀부 등 형태면에서도 문화적 가치가 전작에 밀려나 의왕시 문화재로 등록된 바쳐이기도 하다. 아직 보존 상태가 영호한 편이어서 원문을 쉽게 판독할 수 있다. 비문 중,

‘墓在 廣州之義谷’

이 문해 윤산군 묘역에는 이 옛 마모된 비석을 보완하기 위해 옛 묘비에서 엄비를 거리를 두고 나란히 그 후손인 韓山君 宗壽에서 1998년 옛 비문(죽보에 전해지는 듯)을 참고한 새로 건립된 묘비에는 국한문 혼용체로 쓰여 있는데 ‘의곡리’ 부분은 옛 기록을 따라 ‘義谷里’로 새겨져 있다.

에서 17세기 후반에 씌어진 의왕 서명자료로 ‘義谷’이 분명하게 감지되는 글씨본 자료로 더해지는 것이다. 특히 이 자료는 비의 건립 연대를 기준하면, 피상적으로는 17세기 후반 자료의 하나가 되지만 비문을 지은이(直隸公)의 生沒年代(1556-1618)에 착안할 때, 비문에 명기한 兼城府院君, 顯顯功臣, 諡議政 등 관작 品階를 봉작받은 연대 추측에 따라 실제로는 1604-1617년 사이에 肅公 후손의 무학으로 비문에 밝혀 있듯이 생전에 家狀에 따라 비문을 제작해 준 것인데 가장 형편이 여의치 않아 백사 이항복이 세상을 떠난 후 비석이 건립된 경우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글씨를 쓴 崔叟(허목의 아호)(1595-1682)는 1657년에 초임인 持平(정5품) 벼슬을 하고, 이듬해인 1658년 孝肅(사헌부 정4품)에 승진한 후 1660년대에 삼학부사(종3품), 1674년 대사헌(종2품)에 특진된 정력자로 보아, 비문에 ‘中直大夫 尙衣院正’으로 평가되어 있어, 中直大夫(종3품 종제)로서 尙衣院正(정 3품 당하관)직급의 벼슬직에 임명된 (階卑顯高로 ‘正’ 수가 삼입됨)시기 이므로 오성부원군 李恒福이 작고한(1618) 지 40여년이 경과한 후인 1660년대에 비문 글씨를 써 준 것이 된다. 따라서 비문속에 ‘義谷’이 씌어진 실제 시기는 비의 건립연대(1682)뿐만 아니라 崔叟가 글씨를 써준 시기보다 훨씬 앞선 1610년대를 전후하여 씌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끝으로 18세기 전기의 글씨본에 속하는 ‘義谷’ 자료를 본다면, 의왕사 鶴儀洞(의일) 소재 大司憲 朴德南(1527-1572)의 묘비(1733)가 될 것이다. 이 비문은 朴愼周(1665-1748)撰이며, 安萬福(전면) 柳公權(후면)의 글씨를 볼 수한 묘비다. 비문 첫머리에서 역시 ‘義谷’이 확인된다.

‘嗚呼 惟此廣州治西義育里’

이상 네 비문에 나타난 ‘義谷’ 표기는 의왕시의 옛 지명 부리의 한가닥이 되는 漢字 표기는 첫 글자가 義谷의 ‘義’字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관심을 끄는 것은 세세영 신도비의 ‘義谷’만은 광주 ‘義谷面’의 ‘義谷’을 지칭한 것이고, 나머지 세 개의 비에서 발견되는 ‘義谷里’의 ‘義谷’은 광주 ‘義谷面 義谷里’라는 마을명까지 분명하게 밝혀 놓은 점이다. 鶴山君 李恒福 묘비가 현재로는 의왕시 내촌동(능암마을)에 위치하고 있지만 그 당시는 이곳도 의곡리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이를 현재의 의왕시 학의동 외일마을과 구별하는 이름으로 ‘義進內洞’

4) 白沙 李恒福이 兼城府院君에 봉해진 때는 1602년이고, 憲顯功臣 1등에 봉해진 것은 1604년이며, 諡議政이 되후 오성부원군에 봉해진 것과 1613년 逆賊을 전거했다는 대간의 탄핵으로, 辭職疏를 올려 은거하였다. 1617년 장해군의 폐모 논의에 극력 반대하다 함경도 목청에 유배되어 이듬해인 1618년 직소에서 생을 마쳤으므로, 오성공신을 봉작받은 1604년에서 유배되는 해인 1617년 이전에 肅公 후손의 부탁으로 家狀(가장)에 따라 이 비문을 지어준 것으로 생각한다.



으로 지칭하고, 현 의림마을은 ‘義逸外洞’으로 부르게 되었다. 일본강점기인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義逸內洞(능안마을)’은 ‘桂洞(손곡)’과 ‘鶴山(갈외)’ 일부의 통합되어 ‘內洞里’로 개칭되고, ‘義逸外洞’은 ‘鶴腹洞’과 통합되어 ‘鶴儀里’로 되었다. 이 때 漢字 표기는 ‘義’수가 아닌 ‘儀’수를 택하여 ‘鶴儀里’로 쓰게 되었으며, 황주군 義谷面과 正倫面을 통폐합시켜 ‘儀旺面’으로 개칭하는 한편, 군도 ‘廣州郡’에서 ‘水原郡’에 편입하여 각각 ‘水原郡 儀旺面 內洞里’와 ‘水原郡 儀旺面 鶴儀里’가 되었다.

3

한편 이와 병행하여 ‘의왕’의 뒷글자인 ‘왕’수의 뿌리되는 ‘왕륜’에 대한 漢字 표기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우리는 새삼한 고찰의 필요성을 느낀다. 흔히 통간에서 전해지듯 ‘왕림마을’(현 의왕시 왕곡동)은 정조의 현종원 참배서 서근 행궁에 주청한 사실에 근거하여 ‘대왕에서 왕림(王臨)하신 것’을 ‘王臨’이라고 보는 데서 ‘王臨’이 바뀐 것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일반적이다. 필자가 이제까지 연구하고 고찰한 바로는 이것은 역사적 사실에 위배된, 왜곡된 지명 유래 설화가 아닌가 한다.

왜냐하면 정조의 현종원 첫 참배는 정조 14년(1790) 음력 3월 5일(양력 3월 24일 수요일)이며, 이때는 사근면 행궁에는 주청하지 않았으며, 현재 12차(왕복24)에 걸친 능행 참배가 있었으나 사근면 행궁에 주청한 것은 재 5차 전에서 왕복 2회((1794년 정조 18년 음력 1,13(양력 2,12) 및 환궁시 음1,15(양2,14)), 6차 전에서 왕복2회((1795 음2,16(양3,30) 및 환궁시 음2,15(양4,4)), 11차 전에서 1회((환궁시 1799, 음 8, 20(양9,19)) 주청한 것이 전부로 왕복 24회(면도12회)중 5회에 해당한다. 정조 대왕의 사근면 행궁에서 첫 주청한 것이 5차 전에서인 정조 18년 1794년이므로 이 이전에는 ‘왕림’이라는 지명을 날게 한 ‘왕륜’이 문헌 또는 금석문 기록에 발견되지 않는다면, 이제까지 전해오는 위와 같은 향간의 전설이 사실일 수도 있겠으나, 실재는 한의하게 다르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에 대하여 재을 미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조선시대 廣州郡에 속한 義谷과 正倫이 분명히 일정한지역을 지칭하는 地名으로 간주할 때 ‘義谷’과 더불어 ‘正倫’도 그 쓰임이 16세기 전반기에도 동일한 표기로 읽혀 왔으리라는 실증은 거의 사실로 간주된다. 다만 義谷지역과는 달리 正倫지

5) ‘義逸內洞’이 현재 내승동 ‘능안마을’이고, ‘義逸外洞’이 현재 학의동 ‘의림마을’임을 지도에 보여주는 자료는 몇 개 있으나, 현재 광정기의 것으로는 1750,000의 大政 8(1919)년 발행의 『軍浦圖A』 및 『廣州圖』 등을 각각 들 수 있다. 여기에는 의왕면을 ‘儀旺面’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의림’의 漢字표기에 한해 작은 편으로 써오인 ‘義逸’로 기록한 점이 특기할만하다. 시기적으로 보아 분자 표기의 보충설에 걸려든 예라 하겠다.

역에 발견되는 16세기까지 소급되는 鎭石호이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는 점이 아쉽
을 따름이다.

‘王倫’이라는 지명은 아와 같이 16세기 금석문뿐 아니라, 정조의 현몽원 전배 이
현인 16-7세기 문헌기록도 ‘鎭石’과 마찬가지로 현재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18
세기 문헌에서는 대체로 정조의 현몽원 전배 이전 문헌인 『淸風金氏世譜』(1750),
『輿地圖書』(1759), 『戶口總數』(1789) 등 1789년까지 간행된 몇 문헌에서 하나와
호트리짐 없이 모두 ‘王倫’으로 일관된 기록을 발견하게 된다.

17세기 금석문 중 ‘王倫’이 지금까지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淸溪寺事蹟記碑』
(1689)로, 전면의 사적기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뒷면에 事蹟碑 건립에
시주한 불자들의 주소지에 ‘王倫面’이 보이고 있다. 정확한 판각 면대는 추정기
어려우나 기록된 비석면의 앞 쪽 위치로 보아 처음에 시주한 대열속에 끼어 있는
것으로 여겨지, 미처 건립 면대와 상당히 근접하리라 사료된다. 시주한 사기의 순
서에 따라 추가로 나중에 시주한 사람일수록 비석면의 뒷쪽 끝부분에 기록하게 되
기 때문이다. 따라서 끝부분에 기록한 시주자의 주소지명은 비석 건립면도와 실제
거리감을 나타내는 것도 있음직 하다.

다음으로 황문지역 금석문 비문에 ‘王倫’이라는 漢字 표기가 가장 오래된 기록으
로 전해지는 것은, 의왕시 고전동 소재 의왕시청 청사 남쪽 골우물마을 삼기슭에
자리잡은 金仁伯妻 安東權氏 墓表다.

묘표 뒷면에 간략히 적은 ‘右議政 金構 謨齊’로 된 ‘王倫傳 七十一 年 癸未’라는
기록으로 이 비문이 1708년에 세운 묘표의 기록임을 알 수 있다.⁶⁾

『墓主 廣州王倫里 五峯山下面向之塚』

여기 보이는 ‘王倫里’와 ‘王倫’을 들 수 있다.

또 이곳 앞쪽 우측에 별도로 건립되어 있는 『安東權氏墓碑』(1763)에서도

『墓主 廣州王倫里 五峯山下面向之塚』

이란 같은 표기와 ‘王倫’이 보이는데 이 역시 1768년에 건립된 것으로 글은 호태
인 領議政 金在魯가 지었고, 글씨는 호태인 領議政 金尙魯가 썼는데, 墓表말은 王
孫 左議政 金在魯가 쓴 것으로 밝혀 있다.

현편 이 일동권씨 부군인 贈吏曹判書 金仁伯 묘소는 현 왕곡리 왕림마을 당산에
자리잡고 있는데 이 묘비명애,

6) 최근 필자는 이 墓表의 원문이 연세대 소장 『觀復齋遺稿』(一) 중 ‘甘祖 贈貞夫
人權氏墓表’에 수록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간 미루던 묘표준 및 글자표
되찾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다.

『廣州王倫里瑞山康向原』

『王倫里』가 표기되어 있다. 이 비의 건립 연대는 구월 양동 권씨 묘비보다 약 20년 앞선 1742년이다. 이 墓碑는 諡議政 李宜顯 撰과 諡議政 金在魯 篆, 尹得和書로 되어 있다.

또 같은 왕곡동에 자리잡은 金友贊 碑道碑(1764)에서도 역시 『王倫』의 표기를 발견하게 된다.

『廣州王倫古縣白雲山下枕獨原』

『원래 이들 비문뿐 아니라 이 시기(영조의 현릉원 건립 이전)에 간행된 문헌에도 같은 『王倫』 표기로 알관하고 있다. 『王倫』 표기가 가장 먼저 보이는 문헌으로는 『청풍김씨세보』를 들 수 있다.

즉 『淸風金氏世譜』(1750) 중 金友贊 묘소를 적은 단과 金倫 묘소 대목에 각각

『墓 廣州王倫里白雲山麓巽坐』

『墓王倫里紅靑洞坎龍癸坐原』

의 『王倫里』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표기는 金仁伯, 金益新, 金克孚, 金樸, 金樸, 金樸 등 묘소 기록에도 동일하게 나타나 모두 『王倫里』가 여덟 번의 표기 중, 단 하나도 어긋난 표기는 볼 수 없다.

특히 이 『淸風金氏世譜』는 간기에 의해 영조 26년(庚午)에 간행된 『庚午譜』인 원본이므로 문헌적 가치는 물론 의왕지역 지명 연구에 다시 없는 귀중한 자료임을 밝혀둔다.²⁾ 덧붙이거니와 이제까지는 『王倫』 표기가 金石호인 아닌 문헌으로는 이것이 가장 오래된 것으로 여겨졌다.

또 『輿地圖書』(1759)의 廣州府편 지도와 관할면 기사에 각각 『義春面』과 더불어 『王倫面』으로 漢字표기가 되어 있다.

위의 제 자료에서 『王倫』의 표기로 통일되고 있음을 당시 이 지역이 『王倫』으로 지칭된 표기임을 단적으로 나타내 주는 증거라 하겠다.

이상의 여러 비문과 문헌에 보이는 『王倫』이라는 표기는 正祖의 화상 능행 이전의 최초 자료라는 점에서 正祖대 이전 이곳에 柱臨하셨기 때문에 『王倫』이 유래되

기 이 추보는 1750년 庚午년에 간행되어 청풍김씨 문중에서는 『庚午譜』로 지칭하는 중요 간본이다. 이 자리를 빌어 이 귀중한 『淸風金氏世譜』인 庚午譜를 재차 필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주선했던 왕곡동 김진형, 김성형 고원초등학교 동문회를 위시한 청풍김씨 문중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되었다는 설을 쉽게 입증할 수 있을 듯하다. 즉 ‘왕림’이라는 지명은 ‘王倫’으로부터 유래된 것이며, ‘王倫’에서 ‘왕림’으로 속지명화된 경위는 ‘王倫’의 음독(소리 읽기)에서 발음이 변질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왕륜’>‘왕린’>‘왕달’ 또는 ‘왕림’으로 불합리한 발음 전달의 기인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4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의왕의 뿌리가 되는 漢字表記는 ‘義谷’의 ‘義’자와 ‘王倫’의 ‘王’자를 취한 ‘義王’이 의왕의 역사적 기원의 뿌리가 되는 漢字표기라 하겠으나, 앞에서도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義王’으로 정착하게 된 것은 일본의 한국 강점기인 1914년, 부령 제11에 의거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廣州郡 義谷面’과 ‘王倫面’을 통합하여 ‘水原郡 義王面’으로 통폐합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때 통폐합된 漢字표기는 분명히 ‘義王面’으로 ‘義王’이 확고하게 중독된 부령에 의하여 공문서에 변경되어 굳어지게 되었다.

환언하면 대체로 1780년대까지는 ‘義谷’과 ‘王倫’이 확고한 한자표기 지명으로 금석문이나 문헌에 한 주도 혼란됨이 없었으나 그 후 1790년대에 접어들면서 중요되기 시작하여 ‘義谷’이 ‘義王’으로 혼란되어 표기되고 ‘王倫’도 ‘旺倫’으로 문헌과 금석문에서 혼동되어, 심지어는 동일본현에서도 그 혼란상을 보인 것이 사실이다(출고 1997, p.138 참조). 결과적으로는 일제의 행정구역 통폐합에서 그 종지부를 찍고 ‘義王’ 대신 ‘義王’으로 고정된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피상적으로는 의왕이 일제의 왜곡적 산물인 것처럼 느껴 우리 맛이 아닌 것으로 사료될 수도 있겠으나 좀더 이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을 한다면 이 또한 우리의 자각당착의 소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마땅할 듯하다.

직면 관계상 필자가 그간 考究한 결과를 먼저 결론 삼아 밝힌다면 반어적(아어러니)일지 모르겠으나, 정조대왕의 현종원 능행과 관련 있는 毅宗의 『圖幸定例』(1790), 『圖幸乙卯整理儀軌』(1795), 『華威城役儀軌』(1801) 등의 국가기관에서 간행한 정무간행물 중에 ‘義谷’이나 ‘旺倫’으로 표기를 혼란하게 자초한 결과가 그 뒤 이들 문헌을 참고한 『南漢志』(1846), 『大東地志』(1864), 『廣州府邑誌』(1871) 또는 1899 간본인 『朝鮮地誌資料』(1919) 등 많은 地誌나 地圖類에 그대로 혼기됨에 따라 ‘義谷’과 ‘旺倫’이 위통상을 띠 ‘義王’과 ‘王倫’을 몰아내고 실제 있는 漢字로 둔갑되어 참차 확산된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에 간략히 이들 자료를 제시하기로 한다.

『圖幸定例』(1790)

驛馬:

乍驛 義谷面 驛驛 王倫面 五臺山

果川作路時驛驛 義谷面 驛驛

傍驛 義谷面 百驛面 仁里

果川作路時伏驛 義谷面 百驛面 仁里

『圖考乙卯整理儀軌』(1795)

- 卷五, 蟠馬 : 斥候伏兵信地條
- 廣州 斥候 ‘儀容葛洛事’
- ‘王倫面 玉隆山’
- 伏兵 ‘儀容面自檢洞三巨里’

『華城城役儀軌』(1801)

- 卷首庫目 : ‘旺倫伐木’ (5b)
- ‘旺倫伐木瓦壁所’ (5b)
- ‘旺倫及石雲洞伐木’ (9a)
- ‘旺倫瓦壁所’ (9b)
- ‘旺倫伐木’ (10b)
- ‘旺倫壁所’ (12b)
- ‘旺倫瓦壁所’ (13b)
- 卷四品目 : ‘旺倫 白雲洞’ (39b)
- ‘旺倫建觀坪’ (40a)
- 卷六財用 : ‘廣州 旺倫’ (47b)

위의 세 자료 중 특히 정초의 현용원 전례와 직접 관련된 것은 『圖考定例』(1790)와 『圖考乙卯整理儀軌』(1795)로 내용이 중첩되는 것이 많은데 ‘의궤’가 다섯번 나타나는데 모두 ‘儀容’으로 표기하고 있다. ‘왕륜’은 세번 보이는데 변경되지 않고 종전 기호처럼 ‘王倫’으로 표기하고 있다.

그런데 『華城城役儀軌』(1801)에는 ‘왕륜’이 10번 찍어진 것이 확인되는데 모두 ‘旺倫’으로 통일되어 있다. 아마도 1789년 이전의 문헌이나 비문에서는 겹쳐 이 같은 ‘儀容’이나 ‘旺倫’은 발견되지 않는다.

『圖考定例』와 『圖考乙卯整理儀軌』 두 문헌에서 ‘王倫’은 그대로 지켜지고 ‘義容’을 ‘儀容’으로 바꿔 쓴 것은 아마도 문헌 기사자의 착각으로 誤認한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한다. ‘義’를 의도적으로 ‘儀’로 바꿨다면 더욱이 사가에서 꺼려하는 ‘王’字도 기피하여 ‘旺’으로 변경하여 ‘旺倫’이 될지하나 아쉽게 그 단계까지 고려한 것 같지 않으므로 ‘義容’의 ‘義’를 ‘儀’주로 쓴 것이 잘못일 가능성이 많을 듯하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華城城役儀軌』는 ‘王倫’을 모두 ‘旺倫’으로 고쳐 쓴 것은 의도적 변경이 아닌가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 모든 예외 ‘王’字를 ‘旺’으로 잘못 쓰지는 않았을 듯 싶다. 아무튼 誤字든 의도적이든 결과적으로 이들 문헌이 ‘儀’와 ‘旺’주로 바뀌 쓴 세기가 된 최초 문헌으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이들 세 문헌이 이제까지 찍어오던 원통하 표기 방법을 따르지 않고 다른 漢字로 바꿔 쓴 까닭에 대해서는 일언 반구도 언급하지 않아 그 실의가 무엇인지 명쾌히 알 수는 없다. 추측컨대 아마도 착각하여 義를 儀로 쓴 것이 아닌

가 한다. 그런데 양봉은 『國幸定例』나 『蟹浦儀軌』에서 전봉 표기대로 '王倫'으로 적었으나, 10번이나 나오는 『城役儀軌』에서는 모두 '旺倫'으로 표기한 것은 착각이라기 보다는 의도적 변개일 듯하다. 흔히 '王'에 대한 존경심에서 사사롭게 '王'자를 버섯이 쓰는 것을 삼가한 탓에 사사지가 '왕'자 옆에 다른 부수(部)를 넣은 '旺'자로 변개시킨 것이 아닐까 한다. 하지만, 전해져오는 전통의 地名에는 애당초 그에 걸맞는 의미가 배어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변개에 대한 수용을 꺼리지 않을 수 없다고 믿어진다. 관료적 기사자의 후일성이 순수 전통의 표기를 왜곡하지 않았을까 하는 심증이 굳혀진다.

요컨대 그 경위의 실상은 무엇이었던지간에 이들 궁적 절부간행의 몇 문헌의 표기가 과거의 전통적 지명의 漢字 표기와는 다르게 바뀌 쓰게 된 계기는 그 후 거의 전반적 문헌과 급속분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사실은 誌上자료를 통하여 쉽게 입증되고 있다. 다음에 예를 몇몇을 들어 뒷받침하고자 한다.

『靑邱圖』(1834)

義谷, '王倫'

『南漢志』(1843)

義谷 (10), 義谷 (13), '王倫' (9), '旺倫' (17)

『東國圖』(1857)

義谷, '旺倫'

『清風金氏世譜』(1857)

'旺倫'

『大東地志』(1864)

『品山雜記』

義谷, '旺倫'

8) 1790년 『國幸定例』 이후 문헌임에도 '의곡'과 '왕륜'이 절조의 원형 이전처럼 '義谷', '王倫'으로 표기된 문헌이 간혹 눈에 띄는데, 이것은 역사적 전통의 사실에 충실한 자료를 토대로 엮어진 문헌으로 평가된다. 古山子 김정호의 『靑邱圖』(1834)는 대동여지도의 기초가된 지도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는 '義谷面'과 '王倫面'으로 표기되어 있다. 또 『朝鮮地誌略』(1888)도 '義谷', '王倫'을 손기 없이 적은 문헌으로, 비록 日人의 편찬물이나 시류에 흔들림 없는 전통 자료에 충실한 표기를 보여주고 있어 이시대 자료중 어용함만한 저작물로 간주한다. 이 문헌은 日本陸軍參謀本部編으로 日本龍溪書舎에서 간행한 책이다. 전2권으로 村上勝彦 해제가 있는데, 『郡地勝覽』등 전통적 地誌를 참고했음이 밝혀있다. 행궁들에 관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화성능행 관련 자료문헌에 영향이 없는 듯 하다.

9) 서상희, 1750년 간행의 『清風金氏世譜』(일명 金氏譜)에는 모두 '王倫'이었던 표기가 1857년 간행된 『清風金氏世譜』(일명 丁巳譜)에는 모두 '旺倫'으로 바뀌 표기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또 묘지가 공교롭게도 왕륜지역에 있어 이 문헌에서의 '의곡'에 대한 漢字표기가 어찌했는지는 살필 수가 없다.

10) 최근 필자는 청풍 김씨 金氏譜(1811~84)의 『品山雜記』(조장자 후손 金峻永

- 『海東地圖 中 廣州府』(1871)
 ‘儀容面’, ‘旺倫面’
 『朝鮮地誌略』(1888)
 ‘義容’, ‘王倫’
 『廣州邑誌A』(?)
 ‘義容’(8), ‘儀容’(21), ‘王倫’(10), ‘旺倫’(6)
 『廣州邑誌B』(1899)
 ‘義容’(9), ‘儀容’(12), ‘王倫’(9), ‘旺倫’(6)
 (위의 괄호한 숫자는 필자가 조사한 총현 번도를 뜻한다.)
 『東東健 묘갈』(1804)(의왕시 향곡동 소재)
 ‘廣州府南旺倫之面’
 『韓新教요』(1899)(의왕시 이동, 향암 소재)
 ‘其地廣州其地旺倫’
 『果川圖』(1911)
 ‘義-(ウイユ)’, ‘旺倫(ワンリョン)’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1912)
 ‘儀容面’, ‘旺倫面’

1984生)을 의왕시 시사편찬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今王倫是古王宮’, ‘儀容地歌’ (동문집, 150~152쪽)를 재확인하게 되었다. 이 자리를 빌어 자료를 제공해주신 소장자님께 감사한 감사글을 드린다.

11) 『海東地圖』라는 간본이 몇 개 있는데, 이들 1730~1740년간에 간행된 본의 ‘廣州府’에 명확히 ‘義容’과 ‘王倫’으로 기록된 것은 역시 1800년 이전 문헌하므로 전통적 표기를 지키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1871년 간행본인 『海東지도』에서는 ‘儀容’과 ‘旺倫’으로 기록되어 있다. 『의왕지도집』(의왕문화원, 2000)참조.

12) 이 『果川圖』(1911) 지도는 원래 황해도 장서각 소장이었으나 현재 청진문화원에 보관되어 소장되고 있는 귀중 자료로, 1895년(明治28년) 일본 육지 측량부에서 측량하여 1911(明治44)년 발행한 지도로 漢字地名 옆에 일본 가다가나 표자로 지명에 가까운 음을 부기하고 있는 형이 특이하다. 여기에 ‘義-’은 다음 지도들에서는 ‘義西’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것은 ‘義容’의 ‘容’을 새김임기(석독)한 음을 따서 한자를 빌어 썼기 때문에 ‘-’ 또는 ‘進’의 한자로 바뀌 쓴 것이다. 이 지도를 기초로 그 이후 동일지역의 1/50,000로 된 『軍浦圖A』(1919), 『軍浦圖B』(1935) 등의 일본인 제작의 지도에서는 지명표기의 漢字가 인위적으로 변경시킨 사실이 드러나 있다. 예컨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오라산’의 한자 표기가 전자인 『果川圖』에는 전통 표기인 ‘慕洛山’으로 나타나 있으나, 후자의 지도들에서는 ‘喇洛山’으로 바뀌놓은 것은 그 전의를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의 중요한 의관이 되는 모자가 밤에 벗어질 격의 산 이름이 되었으나, 돌이켜 보면 대 일제는 일명대군이 그 옛날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여 매일 이 산 정상 동쪽쪽에 있는 ‘舍人岩’(그 후로 명명된 것임, ‘사인’은 정4품 세을 명임)이라는 바위에 올라 멀리 서울을 바라보며 애국의 심장을 간직했던 때 근거하여 ‘慕洛山’이 유래된 역사성을 회상시키려는 취의가 있다 하여도 좋을 것 같다.

『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1917)

‘儀旺面’(廣州郡 ‘儀谷面’, ‘旺倫面’)

『朝鮮地誌資料』(1919)

‘儀谷面’, ‘旺倫面’

여기서 ‘儀谷’은 전통적 표기의 漢字이나 ‘旺倫’은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1790년대부터는 혼가된 漢字표기가 두드러지게 되어 『南漢志』(1846), 『大東地志』(1864), 『廣州邑誌』(1871?, 1899)’, 『舊韓名覽』(1912) 등의 廣州 피곡면, 왕곡면의 漢字 표기가 상당히 동요되고 있음은 전술한 정조의 화성농행 관련 문헌의 영향이 아닌가 한다.²⁰ 이들 혼란된 자료에는 특히 ‘沙斤坪行宮’의 한자가 인위적으로 변경된 ‘肆觀坪行宮’으로 기록된 점을 흔히 발견하게 되고, 화성원행으로 개명된 ‘蓬瀛臺’(彌勒峴 또는 沙斤峴)가 나타나는 문헌들이라는 점이 우리의 주의를 끈다.²¹ 1900년대에 이르면 이 같은 표기 경향은 더욱 확산되어 상거 『舊韓名覽』(1912)에서 확인되듯이 ‘의곡’과 ‘왕릉’으로 귀착하게 되었으므로 믿어지며, 이외 예를 같이 하여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통폐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당시 ‘義谷’과 ‘王倫’보다는 ‘儀谷’과 ‘旺倫’ 표기에 더 익숙해져 급기야 전통한자 표기를 망각한 채 ‘儀旺’으로 혼잡된 漢字표기가 확고히 고정되는 계기가 된 것으로 결론할 수 있겠다.

13) 『광주읍지』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간년미상의 『광주읍지 A』는 규장각 해제를 참고하면 1871년 간행된 것으로 추론하고 있고, 다른 하나의 『광주읍지 B』는 간기가 적혀 있는 1899년 간행본이다. 그런데 ‘義谷’과 ‘儀谷’ 표기가 전자는 ‘8 : 2’로 ‘義谷’이 많고, 후자는 전혀 ‘義谷’이 나타나지 않고 모두 ‘儀谷’으로 표기되어 있다.

14) 『關東定例』(1790) 이후 문헌에도 부분적으로 전통적인 ‘義谷’의 표기가 적혀지고 있는 예를 볼 수 있는데, 『青邱圖』(1834), 『東國圖』(1857), 『大東地志』(1864), 『朝鮮地誌略』(1888) 등에서는 모두 ‘義谷’으로 표기되어 있고, 『南漢志』(1846), 『廣州邑誌 A』(?)에서는 ‘義谷’과 ‘儀谷’의 빈도가 각각 ‘10 : 3(남한지), 8 : 2(廣州邑誌 A)’로 ‘義谷’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런데 ‘王倫’은 『靑邱圖』(1834), 『朝鮮地誌略』(1888), 『關東定例』(1790), 『關東乙卯整理儀軌』(1795)에는 총파로 표기되고 있으나 나머지 이상의 재 문헌에서 모두 ‘旺倫’으로 바꾸어 기록하고 있으나 ‘王’자를 거부한 표지임이 분명하다.

15) 필자의 既考(1998, pp.218-219, 및 2002, p.25)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關東乙卯整理儀軌』에는 기왕에 사용되어 왔던 전통적 지명이나 漢字표기를 인위적으로 변경시킨 것을 밝히고 있는데, 정조의 현릉원 전제를 경건히 수행하기 위하여 조성 한하들이 지나갈 정도로 거병을 고치거나 漢字표기를 바꾼 사례가 보인다. 즉 ‘沙斤坪’을 ‘肆觀坪’으로, ‘沙斤峴’은 ‘彌勒峴’으로, ‘素沙峴’은 ‘麗安峴’ 등 상당히 많은 지명을 바꾼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변경의 이유는 거의 밝히지 않고, 바꾼 지명만을 명시하여 일방적으로 화답하는 대응으로 되어 있다. 이로 미루어 보면 ‘王倫’이 『禁城戒役儀軌』에서 모두 ‘旺倫’으로 바뀐 표기한 의도를 가늠할 수 있을 듯하다.

5. 結

우리는 이제까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의왕지’의 ‘의왕’이라는 한자 표기가 義王이 아닌 儀旺으로 분해져 사용하게 된 역사적 공백의 배경을 살펴해나갈 수밖에 없었다. 이제 별마디로 이를 마무리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의왕’의 뿌리가 되는 원래의 漢字는 조선시대 廣州府屬인 ‘義谷面’과 王倫面의 義谷의 ‘義’와 王倫의 ‘王’字에 소급된다.

둘째로, 이들 지명의 漢字가 1780년대까지는 현재까지 알려진 金石文 내지 문헌상 자료에 단 하나의 오류없이 모두 義谷과 王倫의 한자표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셋째로, 이들 지명의 한자표기가 최초로 혼용된 공적 정부 간행물은 1790년대에 간행된 『國幸定例』(1790)와 『國幸乙卯整理儀軌』(1795)에서 비롯하여 『華城城防儀軌』(1801)로 이들 세 문헌은 청조대왕의 화성 편찬원 전매하 인연있는 문헌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데 우리는 주목하게 된다. 여기서 ‘儀谷’과 ‘王倫’이라는 漢字 표기를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넷째로, 1800년대 이후 1914년 4월1일 일제의 행정구역 통폐합 부령이 나오기까지 대다수의 사적, 공적 간행물들은 ‘義谷’은 어느 정도 쓰고 있었으나 ‘王倫’은 별 자료 외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표기자가 전통성과 주체성을 망각한 채 ‘儀谷’과 ‘王倫’의 漢字를 위 세 문헌을 근거로 사용하게 된 데에 비롯하였으며, 이것이 일본 강점기의 통폐합 과정에서 ‘水原郡 儀旺面’으로 개편할 때 그대로 ‘儀旺面’의 한자표기로 사용하게 되는 빌미를 마련해주고, 그것이 또 오늘날에 이르는 것이다.

끝으로 璽璽(현 왕곡동의 자연마을명)이 청조의 능행과 관련하여 비롯되었다는 안착은 해곡원 침입을 본분 논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선시대의 광주부에는 ‘義谷面’과 더불어 ‘王倫面’이 일찍부터 있었으며, 현재 전해지는 비문이나 문헌을 통해서도 청조의 편찬원 능행 이전에 ‘王倫’이라는 지명표기를 쓴 사실에 비추어 ‘왕륜’에서 ‘왕림’을 유래시킨 점을 이해할 수 있을 듯하여 여기에 부기해 두기로 한다.

참고 문헌

- 『果川鄉土史』上(1993).
 『南漢志』, 1846.
 『廣州邑誌』, 1899.
 『大東地志』, 1864.
 『承政院日記』.
 『始興郡誌』上, 下, 始興郡, 1988.
 『新增東國輿地勝覽』, 朝鮮史學會, 1530.
 『輿地圖書』, 1759.
 『國辛乙卯整理儀軌』, 1795.
 『國辛定例』, 1780.
 『朝鮮地誌政科』, 1919, 국립도서관.
 『戶口總數』, 1789.
 『朝鮮地誌略』, 1888.
 『華城城役儀軌』, 1801.
 『國譯華城城役儀軌』(李江魯, 李慶善譯), 1979.

- 이명규(1993), “正祖의 거둥길”, 『果川鄉土史』上, 과천문화원.
 _____(1997), “그릇된 地畵에 관한 考證”, 『서움문화』 3, 서움문화사학회.
 _____(1998), “의왕지역의 지명 고찰(1)”, 『한양어문』 16, 한양어문화회.
 _____(2000), “의왕지역의 지명 고찰(2)”, 『한국언어문화』 18, 한국언어문화학회.
 _____(2002), “正祖의 關津과 華城 축성을 통해본 의왕사료에 대한 몇 고찰”, 『의왕문화』 창간호.

의왕시 향토·역사관 운영 사례



이 중 훈
(오전초등학교 교장)

1. 머리말

오늘날 한국 사회는 급격한 산업화와 개발화에 따른 물질적 풍요와 환경의 급변으로 인한 사회 구조의 변화, 생활 양식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로 인하여 아동들이 우리 역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과거의 역사는 과거에 대한 기록만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는 오늘을 낳고 오늘을 미래로 향한다. 따라서 모든 역사는 오늘과 내일을 창조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고 효과적인 교육활동을 위해서는 아동들이 우리 역사에 대해 아는 것이 교육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향토의 역사는 모든 것의 기록이며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를 이해하려면 자기가 속해 있는 향토를 바로 알아야 한다. 하지만 오늘날 향토의 역사는 그 기록들이 원형대로 보존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며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서양의 교육제도와 교육 상황에 밀려 그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교는 2000년부터 향토·역사관 설치 계획을 협의하여 2001년에는 민족유물 수집 및 컴퓨터 그래픽 자료를 제작 하였고 2002년에는 의왕시 모형도 제작 및 의왕시 문화재 비디오를 촬영 제작하였다.

제작이후 본교 향토·역사관을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주5일 수업제 연구학교 발표회로 인하여 제주도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각 학교 및 교육청의 교직원들이 방문하였고 의왕시 관내 3학년 아동 및 주민들의 교육의 장으로써 활용되어 왔다.

이에 이 기회를 통하여 지금까지의 향토·역사관의 운명 실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이를 토대로 본교 향토·역사관이 지역 사회의 교육의 장으로써 거듭 활용되기 위한 발전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향토 : 역사관 운영 실태

1. 설치 개요

본교 향토 : 역사관의 규모는 30평(교실 1.5칸)이며 예산은 의왕시청 지원으로 설립되었고 컴퓨터 그래픽 차트 18점, 의·식·주와 관련된 민속유물 219점, 2001년~2003년 졸업생들의 타임캡슐 및 의왕시 모형도, 의왕시 문화재 비디오 등이 보관되어 있으며 향토 : 역사관의 구체적인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컴퓨터 그래픽 차트

컴퓨터 그래픽 차트는 크게 우리나라 歷史, 의왕시 歷史, 학교 歷史로 구분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歷史와 관련된 자료로는 독립선언서, 태극기의 유래와 의미, 애국가의 작곡가 및 애절, 우리나라 전도, 훈민정음의 창제시기 및 원리·활용법과, 나라꽃 무궁화의 명칭 및 유래 등 6점이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를 나타내는 상징물에 대해 상세히 공부할 수 있다.



(나라사랑 교육자료)



(국기, 국가, 국화, 국어)

의왕시 歷史와 관련된 자료로는 의왕시의 연혁, 상징, 소개, 녹색 환경의 도시, 자랑거리, 문화유산의 7점이며 이를 통해 의왕시가 예부터 경기도의 자리취 중심지이고 의왕시의 문화적 유산과 오늘날 자랑거리에 대해 한 눈에 알 수 있는 판넬 자료가 제시되어 있다.



(의왕시의 자랑거리)



(의왕시의 문화유산)

의왕시 관내 초등학교 歷史와 관련된 자료는 1925년 청계동에 설립된 성현서당 이후 의왕시 초등학교 변천과정을 담은 차트가 있으며 이를 통해 의왕시 초등학교 설립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고 최초의 교육과정인 교수요목시대에서부터 제7차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교육과정의 변천사와 왕곡 초등학교의 연혁, 학교의 상징, 교육의 방향, 교훈 및 교육목표, 역대 교장, 역대 운영위원장 등 5점이 보관되어 있다.



(의왕시 초등학교 변천과정)



(왕곡초등학교 연혁)

2) 민속유물

본교 향토·역사관에서 수집한 민속유물은 2001년 4월부터 7월까지 본교 아동들의 가정에서 보관하거나 수집한 자료들로 모두 기증에 의하여 의·화·주·생·업·교육 등 9종 총 219점을 수집 보관하고 있다.

의생활과 관련된 유물은 가위, 고무신을 비롯해 18점이며, 식생활과 관련된 유물은 곰방대, 찰그릇을 비롯한 96점, 주생활과 관련된 유물은 다리미, 등잔을 비롯한 19점, 기타 생업일상을 비롯한 6종 86점이 보관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지금까지 사진 자료로 공부하거나 박물관을 직접 방문하여 공부해야만 하는 지공간적 불편을 없애고 학교에서 직접 물건을 보면서 공부할 수 있는 산 역사체험장으로써 역할을 하고 있다.



(의생활 유물 전시 모습)



(주생활 유물 전시 모습)

3) 의왕시 모형도

의왕시 모형도의 규모는 2.1M × 1.2M이며 성과 호수 6, 초등학교 10곳, 주요기관 15곳, 분화재 19곳, 상업시설 5곳이 LED 형광등으로 표시되어 있어 의왕시의 전체적인 모습과 인근 시군, 주요 기관이 분포하고 있는 모습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의왕시 지형 모형도-측면)



(의왕시 지형 모형도-전면)

4) 의왕시 문화재 비디오

의왕시 문화재로 청계사, 김유 선생 열정, 임영 대군 사당 등 14곳, 의왕시 산과 호수로 청계산, 백운저수지 등 4곳을 18분 분량으로 제작하였으며 의왕시의 문화재의 위치, 문화재의 유래에 대해 상세히 공부할 수 있다.



(연도별 졸업생 타임캡슐)



(향토역사관 전경 모습)

그 외 2001년, 2002년, 2003년 졸업생들의 꿈과 희망을 담은 타임캡슐을 도자기에 봉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이것은 15년 뒤 8월 15일 오전 11시에 함께 모여 개봉하기로 하였으며 자신의 새롭게 변한 모습과 옛 추억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향토·역사관 개방시간

향토·역사관은 오전 9시~12시 20분까지는 본교 아동들에게 교육과정과 관련된 단편을 추출하여 교육하고 매주 수요일 오후(14:00 - 17:00)는 모든 아동과 학부모, 지역 학교 및 일반인에게도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그 동안 의왕시 각 기관장 및 의왕시 왕곡동 노인회와 오전 초교 3학년 아동 등 많은 지역주민이 다녀갔다.

또한 주5일 수업제 휴업일에도 학교 활동하는 아동과 가정에서 체험학습 하는 아동들에게 개방하며 일반인에게도 개방하였다.

Ⅲ. 함포·역사관 발전 방안

본교 함포·역사관의 설치 목적인 내 고장에 대한 애郷심을 기르고 의왕시 역사를 배우는 체험학습장으로서의 역할과 과거와 미래 교육을 이어줄 수 있는 산 교육시설로서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 역점을 두어 발전시켜야 하겠다.

첫째, 가치 있는 의왕시 교육 자료 보존의 장으로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의왕에 관한 역사적 자료를 수집·보존 전시하고 이 자료들을 조사 연구하여 의왕시의 역사를 배우는 산 교육의 장으로서 활용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과정에 반영을 통한 이용가치의 극대화할 시키기 위해서는 본교 아동들의 수업에 적극 활용할 뿐만 아니라 의왕시 관내 초등학교에 적극 홍보하여 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원의 연수 활동 및 교육 정보 자료를 제공하고 의왕시민에게 적극 홍보하여 모든 의왕시민들이 의왕시의 역사를 이해하고 애郷심을 고취할 수 있는 장으로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Ⅳ. 맺음말

함포·역사관이 설치된 지 3년이 흘렀다. 그 동안 전국각지에서 많은 교육 인사들이 다녀가셨으며 본교 아동들도 함포·역사관에서 교육과정에 따라 수업을 하고 있다.

앞으로 좀 더 지역주민과 의왕시 각급 학교에 홍보하여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교육의 장으로써 거듭나기 위해 의왕시 교육 자료 보존의 장으로서 활성화시키고 의왕시 문화원의 힘으로 역사적 기록들이 원형대로 보존되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다 하는 의왕시의 함포·역사관으로서 거듭나야 할 것이다.

향토(지역)자료 수집의 대상과 목적¹⁾

지수걸(광주대 역사교육과 교수)

머리말

1. 향토(자료)가 소중한 이유
2. 의미 있는 향토(지역) 자료란?
3. 향토(지역) 자료의 수집 및 활용 방법
맺음말

머리말

1989년 시로 승격된 의왕시는, 조선왕조 시기에는 광주군(부), 일제시기에는 수원군, 삼부수립 이후에는 시흥군에 속했지만, 병 규모(의곡면, 왕촌면)의 한적한 시골이었으나, 지금은 인구 15만명 이상의 신중도시로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의왕이 조선왕조 시기 광주군 소속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의왕 시민이 과연 몇이나 될까? 누군가가, 교천리·대촌리·오전리·정계리 등이 조선왕조 시기에 광주군이었던 이유로서, “광주산맥 서쪽 끝자리, 즉 청계산과 백운산 일근에 발달한 취리지 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한다면, 그 유사함에 당면히 놀랄 이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지식은 그 자체만으로는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살아있는(가치있는) 지식’이라 말할 수 없다. 그러면, 뭐와 같은 지식을 ‘살아있는 것’, ‘가치 있는 것’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오늘 심포지움의 대주제는, 《올바른 『의왕시사』의 편찬과 역사자료 인식 재고》이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왕시의 역사와 문화를 잘 정리해야 한다”거나, “의왕시의 역사와 문화를 잘 알아야 한다”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을 듯하다. 그러면, 왜 그래야 하는 것일까? “잘심할 때 잃어버리면 재미있을 것 같으니까”, “다른 시 군들도 10년을 주기로 다들 만드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정도의 인식수준에서 『의왕시지』를 편찬할 경우 제대로 된 시지가 편찬될 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활용 또한 이루어질 리가 만무하다. 제대로 된 ‘의왕시지’를 편찬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의왕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지식이 도대체 어떤 모습이 있는지를, 주민들은 물론이고 자치단체장이나 의회의원들에게 분명히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제대로 된 『의왕시지』가 필요한 이유, 또는 의왕시민들이 의왕시의 역

1) 이 글은 2003년 10월 11일 의왕시사 편찬 위원회에서 개최한 제1차 심포지움 발표문을 정리, 요약한 글입니다.

사와 문화를 잘 알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더 나아가 의왕시의 역사와 문화를 ‘죽은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식’으로 만들려면 어떠한 노력이 선행(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질문들에 대한 발표자 나만의 답을 제시한 뒤, 뒤이어 제대로 된 『의왕시지』를 만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문화원, 혹은 주민이나 향토사자들이 어떠한 노력이나 인식전환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를 말해보고자 한다. 미리 결론을 말한다면, 제대로 된 『의왕시지』를 발간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향토에 대한 애정과 자긍심, 역사와 문화에 대한 새로운 안목을 가지고 꾸준히 향토(지역) 자료를 수집·정리하는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 발표자의 생각이다.

1. 향토(자료)가 소중한 이유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각 자치단체들은 『시군지』나 『마을지(洞誌, 洞州誌)』, 혹은 특정 주제의 향토 역사와 문화에 대한 조사연구 성과물(보고서, 출판물, 영상물 등)들을 경쟁적으로 산출해내고 있다. 내가 사는 공주만 해도 자치단체, 문화원, 지방대학 연구소, 향토사연구단체 등이 즐비 되어 매년 많은 조사연구 성과물들을 생산하고 있다. 그러면 각 자치단체들이 많은 비용과 인력을 투자하여 이 같은 사업에 매진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 그 나름대로 특별한 이유나 목적이 있음이 분명할 듯 싶다.

각 자치단체들이 생산·활용하고 있는 각종 성과물들을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는 자력에 대한 자긍심이나 향토애를 복돋을 목적으로 생산된 각종 성과물들이 주목된다. 가령, 공주시가 ‘백제의 왕도’, ‘강원 소재지’ ‘충효의 고장’이라는 ‘이미지(歷史像)’를 만들어 내기 위해 여러 가지 성과물을 생산한 것, 혹은 몇 일전 학생들과 답사한 안동시가 ‘알반문화와 연꽃지’, 또는 ‘민족독립운동의 성지’ 등의 이미지를 만들고자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등은 모두 이런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안동시의 경우는 자기 지역 출신의 독립운동가를 집중적으로 발굴·선양함으로써, 자기 고장이 ‘애국애족의 성지’ (독립유공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고장)라는 이미지를 새롭게 구축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전략은 국가차원의 매분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포석으로서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로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관광 자원화 할 목적으로 진행된, 여러 형태의 조사연구 성과물들이 주목된다. “21세기 고부가가치 산업은 문화산업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앞으로 역사문화 관광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당장 ‘주5일제’만 실시되어도 관광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 뻔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앞을 다투어 자기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관광 자원화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특정 역사를 선점하기 위한 지역 간의 갈등, 혹은 아편연수식의 역사해석이 난무하기도 하나, 어찌되었는지 전일포한 문화현상이 분명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사업은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 믿어진다.

새 번째로는 지방행정 과정에서 형성된 조사연구 성과물(지표조사 등 역사문화 관련 조사용역 보고서), 예를 들면 지역 내에서 발생한 특정한 민원(民願)을 해결할 목적으로 산출된 조사연구 결과물들이 주목된다. 가령,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 때문에, 일제하의 강제인력(징용, 징산대)동원, 한국전쟁(노근리 학살), 광주민중항쟁(백서 및 연구서 발간) 등의 실상을 구명할 위한 용역을 연구기관에 발주하거나, 아니면 자치단체가 행정력을 동원하여 직접 조사항동을 벌이고 있는 것 등은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의 산출된 조사연구 성과물들은 민원해결의 기초자료라는 차원을 넘어 교육 자료로서까지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러면 의왕시의 경우는 어떠한가? 시청이나 문화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금방 확인할 수 있듯이, 의왕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역사문화자원이 빈약할 뿐만 아니라 이를 발굴하고 활용하기 위한 노력도 그간 별로 없었던 도시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필자가 사는 광주에는 10점의 국보와 18점의 보물을 비롯하여, 우글티 등 국가사적지까지 5곳에 달함에 반해, 의왕시에는 청계사 동종과 이외에 의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개인 소장품의 보물이 몇 점 존재할 뿐이다. 게다가 의왕시는 그동안 한 번도 역사의 중심에서 본 적이 없는 역사의 주변부였다. 가령, 일제시기의 신문을 뒤적여봐도 의왕과 관련된 기사(『동아일보색인』에 의거해보면 단 1건, 즉 始興郡南面과의 会面要請 기사가 확인될 뿐이다)는 거의 찾아지지 않는다. 이런 사실을 근거로 이야기한다면, 의왕시는 상술했듯한 자원은 고사하고 '의왕'이라는 지역 정체성(identity)조차도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는 눈에 띄는 역사문화자원이 부족하다.

하지만 역사문화자원이라는 것은, 모든 눈에 따라, 또는 의미를 부여하기에 따라 그 가치가 늘 변화하게 마련이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황도유적이나 국방유적, 혹은 불교유적이나 유교유적 등이 상품 가치가 높았으나, 요즘에는 과거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생활유적이나 유물(예를 들면 명당터, 전통마을)들의 상품적 가치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의왕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잘 모르거나, 역사문화 자원의 가치면 저극히 상대적으로라는 점, 요즘 흔하디 흔하듯이 역사문화콘텐츠는 개발 여하에 따라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는 가운데, 새로운 안목을 가지고 착실히 조사연구 작업을 계속해 나간다면, 예상외의 성과를 거둘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의왕시사편찬위원회가 편찬한 『의왕시사 편찬을 위한 의왕시 기초자료 조사보고서』(2003, 5)에 실려 있는 △ 의왕시의 유력 동족마을이나 가문의 고문서, △ 청계동, 호전동, 고전동, 부곡동 지역에서 진행된 구전자료 조사 △ 민간신앙, 일상의례, 의식주 생활 등에 관한 민속조사 등은 별것이 아닌 것으로 들려 보일 수도 있으나 이런 자료도 잘만 정리하면 훌륭한 역사문화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큰 자료들이라 할 수 있다. 의왕시사편찬위원회가 계획중인 『의왕시사』 즉, △ 의왕시인들의 삶터와 일터, △ 의왕사람들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흔적, △ 의왕사람들의 삶의 업적과 틀 등에 대한 조사연구가 제대로 추진된다면, 그 성과물은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교육자료(창조교과)로서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을 교육하는 자료로서도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특히 의왕시의 도시개발과 관련한 각종 자료들은 할 만 수집·정리하면 역사·문화적 가치는 물론이고 경제적 가치조차도 풍부한 자료로서 주목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 믿어진다.

뿐만 아니라 자기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문화는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중시해야 한다. 그 첫째 이유는 향토(또는 자기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경우, 지방분권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오히려 할 수 없는 못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누구나 인정하듯이, 지방자치는 애항심에 기초한 주민들의 활발한 정치참여가 결여되어서는 도저히 발달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참여정부가 표명하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가시화되는 경우 지역주민은 물론 좋은 일상생활의 상당부분을 지자체와 공유할 수밖에 없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자치단체의 주민들은 아직까지 지방자치(정치참여)는 물론이고 지역의 역사문화 정책에 대한 관심도 크게 부족한 형편이다. 자신이 살고 있는 코장이 단순한 ‘살터’가 아니라 중요한 ‘살의 터전’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지방분권이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표는 공염불에 불과한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럴 리도 없지만, 지역정책성을 확보할만한 역사문화자원이 부족하다면, 최근(근현대 역사문화자원)의 지역문화 축에서라도 지역정책성을 확보할 수 있을만한 자원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둘째 이유는 향토(지역) 자료를 잘 수집·정리·활용하려는 노력이 없이는, 지역 균형 발전, 달리 말하면, ‘지역혁신프로그램’을 입안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많은 연구자들이 강조하고 있듯이, ‘지역혁신프로그램’은 지역사회에 유의미한 지식과 정보,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생산·관리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효율적인 실현이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연구와 자본’의 집중 못지 않게 ‘지식정보’나 ‘역사문화’의 집중현상도 대단히 극심한 형편이다. 가령, 참여정부가 지방문화육성정책의 일환으로, △ 우리문화역사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한 문화적 정체성 확립 △ 지역문화축제 지원 및 도서관·박물관 등 문화인프라 구축 △ 출판·애니메이션·게임 등 지역별로 특화된 문화산업단지 조성 등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결국은 지식과 정보, 역사와 문화의 중앙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조처라 할 수 있다. 이해는 교수도 강조했듯이, 문화재 하면 그저 국가지정문화재(매장문화재, 종교 관련 문화재, 국방유적 관련 문화재)나 천연기념물 등을 떠올리는 현업 관련 비관다면, 의왕시도 다른 지역 못지 않게 풍부하고 유의미한 역사문화 자원을 무수히 발굴해낼 수 있을 것이라 믿어진다.

2. 의미 있는 향토(지역) 자료란?

향토(지역) 자료는 형태나 내용별로, 혹은 생산주체나 소장처별로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는 향토자료를 형태별로 구분한 뒤, 이 가운데 어떤 것이 의미 있는 향토(지역) 자료인가를 간단히 정리해보고자 한다. 특히 아래에서는 최근대(또는

는 근현대 향토자료를 설명하는데 더 많은 분량을 할애했는데, 그 이유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일 뿐만 아니라 가공하기에 따라서 효율성도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ㄴ 기록자료(문헌과 문서): 기록자료하면 금방 떠오르는 것이 낡은 고문서나 고서들일 것이다. 이런 자료의 경우는 이미 'TV친필명품' 등의 효과 때문에 비교적 잘 보존 관리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기록문화는 전체적으로 보면 행헌에 가까운 수준이라 말해야 할다. 하지만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사회, 좀더 밝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는 물론이고 각종 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회사법인)들도 기록물을 잘 생산하고 관리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이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기록자료가 바로 일기, 서신, 회고록, 문집, 저서, 책무록, 가계부, 노트=공책, 메모 등 자기기록들이다. 최근 향토사 연구 붐 가운데서 많은 회고록과 저서전들이 발굴되고 있는데, 충남지방의 경우는, 맹의성(조치원, 해방후 증상)의 『關東實記』(公刊), 서역순(공주군, 해방후 충남도지사)의 『關東實記』(필사본), 이병익(홍성군, 해방후 정당활동)의 『秘藏 李秉錫 回顧錄』(공주향토문화연구회 회보), 이호철(부여군, 일제시기 혁명의 총조 활동)의 『回顧錄』(미공개) 등이 발굴되어 향토사 연구에 많은 도움을 준바 있다. 이런 기록들은 비의도적으로 작성된 기록일 뿐만 아니라 '가공되지 않은 것'이라는 점에서 높은 증거능력을 가진 자료라 할 수 있으나 우리 사회의 경우 이런 기록들이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

또한 개인(향토사 연구자 포함)들이 여러 가지 필요(향토사 연구, 취미 활동, 소장 준비, 또는 여러 가지 직업상의 필요)에 따라 수집·정리해 놓은 각종의 '수집본(정리본) 기록물'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바, 예를 들면 특정 사실이나 주제에 관한 신문이나 잡지스크랩, 각종 공문서나 간행물, 향토사(특히 '도지'나 '시군지') 서술의 토대가 된 각종 기록물 등이 그것이다. 이런 자료들은 정리된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자료이므로, 적극적인 조사와 수집이 필요한 분야이다.

ㄷ 구전자료(인터뷰 및 민담자료): 누구나 인정하듯이 한국사회는 글 쓰고 말할 수 있는 권리, 즉 '서면적 권리'가 극도로 제한된 사회였다. 따라서 어떠한 단체나 개인이든 자기 경험이나 생각을 말하거나 기록하는 행위는 늘 위험천만한 일로 간주되었다. 신문에 자주 보이는, "내가 물론 몇몇 다친다"는 부패 정치인이나 기업가들의 일포성 발언, "알면 다쳐"라는 최근의 TV광고 카피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비밀이 많은 사회인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언술들이라 할 수 있다. 과장해서 말하자면, "무덤까지 싸우고 가야 할 사연"이 기상 많은 민족이 바로 우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뒤집어 보면, "우리만큼 구전자료가 풍부한 민족도 달리 없다"는 말이 말릴 수 있다. 인터뷰작업(특히 친식 관공리 인터뷰)은 달연히 생산되어져 왔으나 잘못된 공문서관리 관행 때문에 생산되지 못한 기록들 역시 복원하는

작업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 개별 인터뷰는 특정 사실이나 사건을 직접적으로 경험했거나 기억하고 있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보통인데, 우리 주변에는 그러한 사실이나 사건은 아니지만 생소하거나 밝혀져 있지 않은 독특한 경험과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다. 뿐만 아니라 지방마다 그 지방의 근현대 역사를 손바닥 위에서 다 보듯이 흔히 겪고 있는(?) 사람들도 몇 명쯤은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들의 소중한 경험과 기억을 개별 인터뷰 등을 통해서 수집·정리해 놓는 일은 아무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

집단 인터뷰의 경우는 특정한 역사적 사실이나 사건에 대한 ‘집단기억’을 조사할 때 유의미한 작업이다. 즉 ① 일제와 비군정 ② 농지개혁과 정부수립 ③ 한국전쟁과 월남전쟁 ④ 이승만과 박정희 ⑤ 479와 한일회담반대투쟁 ⑥ 경제개발과 새마을운동 ⑦ 준공과 이농 ⑧ 관공서와 관리 ⑨ 선거와 지방유지 ⑩ 정당과 사회단체 ⑪ 학교 및 종교기관과 지역사회 ⑫ 도시개발과 환경 ⑬ 시장과 살림 ⑭ 부동전투지와 가격 동향 등등에 대한 주민들의 집단기억을 수집·정리하고자 할 때, 집단인터뷰 혹은 설문(면접)조사 방식이 유용하다. 집단인터뷰는 개인의 노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대단히 방대하고 기술적인 작업이나 활용가치가 높은 자료를 산출해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ㄹ 사진 및 필름자료: 사진기와 촬영기가 보급되면서 말이나 글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사실(사진)들도 상당히 정확하고 구체적인 ‘기록’이 가능하게 되었다. 가령, 선교사들이 남긴 개화기·한말의 사진들, 제2차 세계대전이나 한국전쟁 등에 관한 이런 저런 필름들, 오래된 뉴스 필름 등은 어떤 기록자료나 구술자료보다도 당시의 정황을 더 실감나게 보여준다.

필름자료는 흔치 않으나 지방사회의 유지가(有志家)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옛사진들이 보존되어 있다. 가령 공주시가 1996년에 편찬한 『공주의 옛모습』(사진자료집)에는 일제시기 공주 유지가의 후손들이 귀중한 여러 종류의 사진들이 실려 있는데, 여기에 실려 있는 사진들은, 공주의 근대도시 발달사를 연구하는데 있어 더없이 소중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의왕사 기초자료 조사보고서』를 보면, 의왕사의 옛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상당량 수집된 것으로 보 있는데, 잘 정리하면(사진집, 전시회) 『시지』 편찬은 물론이고 교육자료 등으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믿어진다.

발표자는 우연한 기회에 공주의 한 유지가에서, 1930년대 후반기에 공산성 쌍수정에서 촬영된 몇 바퀴 사진 한 장을 구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① 당시 대부분의 유지들이 비슷한 복장(배구두·양복·맞보기만발·급습시계·종절표)을 하고 있었다는 점, ② 유지들의 권복모임에는 의례 기생들이 동석했다는 점, ③ 공주 친목회를 상징하는 ‘마크(로고)’와 ‘깃발’이 있었다는 점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사실들은, 일제시기 지방유지들이 자신들 나름의 ‘공공의 취미나 기초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점, 공주친목회가 대단히 ‘짜임새 있고 공식성이 강한 사회단체’였다는 점 등을 어떤 자료보다도 생생하게 보여준다. 사진자료들을 수집할 때는 이처럼

해당 사업에 대한 풍부한 배경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㉔ 유물·유적 자료 : 유물·유적자료는 근현대사를 연구하는데 있어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현대사를 연구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하지만 ① 오래된 것(50년 이상 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 ② 사실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아니라는 이유, ③ 민족의 치부를 드러내는 식민지 잔재라는 이유, ④ 불온한 역사(사회)의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여기저기서 심각한 훼손행위가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다. 얼마전 정부가 식민지 잔재라는 이유로 조선총독부 건물(중앙청)을 '과감하게' 때려부순 것, 철도철이 노근리 양민학살의 유일한 흔적이라 할수 있는 철교교각을 거라낌없이 콘크리트로 파발라 버린 것 등은 병상의 일각일 뿐이다. 게다가 근현대의 유물·유적은 법적 보호는커녕 '문화재(종합)지표조사' 때조차도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보통이다.

특은 근현대의 유물·유적(건축물이나 도시공간구조, 생활시설이나 도구, 조형물이나 금석문)들은 상방추가 개인 소유일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활용되고 있는 것이 많아 보존과 활용이 여간 까다롭기가 않다. 예를 들면 일제의 식민도시(군산, 목포) 건설 양상을 보여주는 유물·유적을 보호하는 일은 전문화적인 비용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근현대 유물·유적들은 새로운 역사학의 편견, 특히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신문화사'나 '일상생활사'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기록자료보다도 귀중한 자료일 수 있다.

3. 향토(지역) 자료의 수집 및 활용 방법

향토(지역) 자료는 형태와 내용이 복잡하고 분량 또한 엄청난데다가 게다가 전근대 『地理誌』나 『邑誌』와는 달리 근현대 향토자료는 정리되지 않은 형태로 남아 있기 때문에 수집과 정리는 물론이고 사료로서의 가치판단도 쉽지 않다. 더구나 지역연구의 實地性 할 수 있는 구전이나 인터뷰자료는 수집과 정리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작업과정에서 전문가와 전문시설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근현대 지역자료를 제대로 수집·정리하려면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시설이나 기관이 만들어져야 한다. 1999년 '공공기록물 관리법'이 통과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 할수 있다.

하지만 시군 단위에 전문기관과 인력이 갖추어진 자료관이나 지방기록보존소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금방 지역자료의 수집과 정리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지역을 잘 아는 향토사 연구자들의 참여와 협조, 예를 들면 지역단위의 '기록문화청탁운동'이 필수적이다. 특히 자료 소별이 대단히 빠르게 정현되고 있는 민담(소문)이나 인터뷰자료, 채집 글이나 초행찰자료, 사진이나 생활유물 자료 등을 수집·정리하는 작업은 다른 누구보다도 향토사가들이 잘 할수 있는 분야이므로 자료관이나 지방기록보존소를 설립하는 문제와는 별개로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할 필요가 있다.

앞서도 강조했듯이 정보사 자료는 역사와 문화를 보는 안목이 있어야 제대로 원수집과 정리와 이루어질 수 있다. 요컨대, 필요 대수롭지 않게 버렸던 것, 눈여겨보지 않았던 것이 다른 것들보다 오히려 더 소중한 자료가 될 수도 있다. 게다가 '어떤 자료가 더 중요한가' 라는 판단도 대단히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면 다들 주눅이 들어 '나는 못되겠군' 하고 자책감에 휩싸인다. 하지만 앞서 말한 안목은 한국의 역사나 문화를 학문적으로 꿰뚫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학문적 안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역시 자기삶터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다. 이런 애정 어린 관심만 있다면 지역자료를 보는 안목은 저절로 생길 수 있다.

예를 들면 그 이웃들의 삶 가운데서 서로 나누며 돌고 사는 정신이 사라지고 있음을 안타깝워 해본 사람, 그 도시개발로 줄부가 된 이들의 왜곡된 욕망이나 비참한 알로를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 △ 아파트나 주차 등 각종 부기업황에 휩쓸리다 결국 해가망심했거나 삶의(일할) 의욕을 잃어 본 적이 있는 사람, 그 정부기관 유치, 도로 개설 국가자원의 배분문제를 둘러싼 지역 간의 이전투구에 넋덜머리가 난 사람, △ 선거권이었던 나타나 한바탕 야만법칙을 밟다가 이내 사라지고 마는 정치활세를 무수히 지켜본 사람, △ 일스런트척함으로 넘쳐나는 밥상을 보면서 햇날의 자연 작품을 그리워 해본 사람, △ 설날같은 같은 아파트단지를 내려다보면서 초담한 초가집과 옛 마을을 그리워 해 본 사람, △ 사라져 가는 마을이나 야생동물에 한번이라도 세찰 어린 시선을 주어본 사람들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저절로 안다. 관심과 애정이 있으면 안목과 지식은 저절로 생기며, 또 안목과 지식이 생기면 자료수집과 정리는 물론이고 이를 저절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저절로 터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특정 역사문화 자료에 대한 조사작업을 마친 뒤 향토사 연구자들이 망할 때야 할 일은 자료목록을 만들거나 녹취록을 만드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런 다음 수집된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하는데, 가령 지역의 민족독립운동(애를 돌림, 의병운동이나 3·1운동)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했다 할 경우, 이를 △ 향토사 연구(혹은 시지 편찬)를 위한 기초자료, △ 독립유공자 발굴 및 헌장 자료, △ 교육관련 전시자료, △ 문화관광자원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어떤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떻게 활용하고자 하는가에 따라 자료를 수집·정리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는 점이다. 즉 △ 향토사 연구자료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는 '자료집'이나 '자료 소개 글' 형태로 △ 독립유공자 발굴자료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는 '독립유공자 포상 헌정사식(『독립유공자공적조서』)에 맞는 형태로, △ 유적지를 개발한다거나 조형물을 세우는 등 현실사업 자료로 활용할 경우는 현내 책자나 영상(비디오필름) 및 전자자료(이미지 파일) 형태로 그 교육자료로 활용할 경우는 수집지도안이나 집사안내책자 형태로 △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는 홍보비디오나 전자자료 형태로 수집자료를 재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맺음말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말이 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물론 분권과 분산이 만병통치약일리는 없다. 앞서 강조했듯이, 지방분권이나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효과를 최대화하려면 다른 무엇보다 먼저 자기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시민문화를 창달해야 한다. 왜냐하면, 향토에 대한 애정이나 지식이 없으면 위와 같은 정책들은 모두 공염불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개발하려면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지역의 역사문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는 전문기관, 예를 들면 공공기록물관리법상의 '자료관'이나 '시사자료실' 등이 설립되어야 한다. 특히 의왕시의 경우는 과거의 역사문화 자원이 부족한 편이므로 과거보다는 현재 생산되고 있는 역사문화 자원(지역 지식정보)을 수집하고 정리하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 뒤 이런 기관들을 외국처럼 해당 사회의 공적·사적 기록을 모두 수집·보존하는 말 그대로 '아카이브즈'(기록보존소)나 역사·문화·정보센터로 그 기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런 노력과 동시에 지역내의 각종 지역 지식정보를 대트윙크화하는 노력을 병행시킬 수 있다면, 지역사회의 기록문화 수준은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 믿어진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1999년 '공공기록물관리법'이 공포됨으로써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보존 관리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률과 제도는 어느 정도 마련되었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역사와 문화가 발전하려면 지역주민 스스로가 기록문화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스스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창달'하는 운동에 앞장서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역주민이 나서서, △ 지방내의 모든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제대로 된 기록물관리기관을 설립하게 하여 공공기록물을 제대로 생산하고, 관리하고, 공개할 수 있게 하는 운동 △ 역사적 가치가 풍부한 해당지역의 모든 공적·사적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활용하여 지역사회에 문화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운동 △ 해당지역의 공사기록을 토대로 지역주민 스스로가 자기지역의 역사를 주체적으로 밝히고 쓸 수 있게 만드는 운동을 전개하는 경우 지방사회의 자치문화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정치문화 수준도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 믿어진다.

다시금 강조하건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효과를 최대화하려면 다른 무엇보다 먼저 향토사(지역) 자료를 소중히 여기는 문화를 창달해야 한다. 왜냐하면, 자신의 역사와 문화가 없는 지역은 과거뿐 만 아니라 미래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자기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태도는, 자치단체의 미래에 대한 자치단체 스스로의 신념을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라는 말은, 자치단체를 책임지고 있는 이들이 반드시 새겨들어야 할 중요한 종교라 할 수 있다. 향토(지역) 자료를 잘 생산·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바로, '기본에 충실한 지방자치단체', '미래를 열거하는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목표를 바치고자 한다.

의왕시 문화정책과 행정의 문화화

조창연(의왕정보문화연구소 연구위원)

1. 행정의 문화화의 배경

중앙정부의 국정방향은 자율, 참여, 분권이며, 문화정책도 이와 같은 국정방향에 의해서 “새 예술정책”을 준비하고 있다.¹⁾ 그리고 지방정부의 문화정책은 중앙과 지방간의 정부간 관계(政府間關係)에 의해서 중앙정부의 문화정책 방향에 의해서 결정 될 수밖에 없다. 즉, 지방문화예술정책은 시민의 참여와 자율, 그리고 문화예술사무의 분권과 분산의 방향에 의해서 적극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지방정부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며, 지방정부 차원의 문화정책이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방문화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문화적 마인드, 즉 행정의 문화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행정’의 문화화(Culturaliz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는 크게 두 가지의 배경이 깔려 있다. 즉, “문화의 시대”라는 문제 제기와 함께 나가스(長瀬) 카나 가와縣 知事가 말한 “지방의 시대”로 상징되는 것과 같은 일련의 지방의 자주성, 자치 확립으로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은 1973년 오일쇼크에 의해서 처음으로 경제 성장이 둔화되었고, 그와 함께 경제 성장에 혁신호가 커지면서 비로소, “문화”를 재평가하였다. 그러면서, 오사카(大阪) 만국박람회 후 간사이(關西)지역에서는 ‘만국박람회에서 문화로’라는 캐치프레이즈가 등장했으며, 1972년 오사가府는 “문화진흥연구회”의 조직과 기획부에 문화진흥실을 두었다. 그리고 1975년 고오베(高尾)시는 “고오베 문화를 생각하는 성상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효고(兵庫)현은 문화국 등을 설치하면서 간사이 지방 자치단체는 “문화”를 활발히 다루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1977년 하코네(箱根)에서 제1회 전국문화행정연구회를 제기로 “문화”를 말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가 없을 정도로 지방문화행정이 적극 추진되었다.

그런데, 1970년대 이후 일본에서 행거난 문화행정은 文化廳的 文化, 사회교육의 문화, 혹은 문화예술에 한정하지 않고, 더욱 넓은 의미의 시민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인 의미에서의 문화행정을 추진하였다.

그래서, 새롭게 설치된 문화담당 조직도 知事部局, 市長部局에 설치되어 종래의

1)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2004년 2월 19일 서울 평창동 중명리이 호텔에서 약 100명의 문화정책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에서 구체적인 방향이 논의될 예정이며, 필자도 지역문화분과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사회교육 등을 넘는 자리 매김을 하였다. 1975년 일본 요코하의 에에서 보듯이 기획부에 문화국이 설치되어 교육위원회로부터 예술문화행정을 위임받은 것과 함께, 縣政課, 縣民課 등 종래부터 지사부국에 있었던 업무를 통합하여 탄생하게 되었다. 특히 문화국이 기획부에 설치된 의미는, 문화를 특 수교의 것으로 고려하겠다는 것으로서, 이것은 결국 행정의 문화화를 더욱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 동안 “행정”은 “문화”와 너무 무관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문화행정”이 강조되는 가운데, 문화를 산출하는 능력을 갖는 행정으로 나갈 필요를 느끼고 있다. 더 나아가서 “행정의 문화화”는 행정 전체에 대한 재평가를 검토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문화행정을 시행하기 전에 구성원, 공무원 자신이 문화적이어야 한다. 즉 각지정부, 지방공공기관이라는 이미지가 문화적이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 없이 문화행정을 한다는 것은 지속적인 문화행정을 펼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의미가 퇴색하여 진다.

Ⅱ. 의왕시의 문화정책과 행정의 문화화

1991년 4월 26일과 6월 20일 기초지방의회선거와 광역지방의회선거의 실시와 1995년 6월 27일 지방의회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1998. 4. 4지방선거, 그리고 2002년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헌법에서 보장된 “지방자치의 원칙”도 점차 우리의 생활 속에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지금까지 세 번에 걸쳐 실시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중앙에 눈을 돌리는 중앙 지향적 사고모다는 주변에게 눈을 돌리는 지방지향적 지방자치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을 원한다고 해서 자치행정을 하는 것은 아니다. 자치행정은 종래의 官治型 行政을 自主的 市民型 行政으로 개선할 때만이 가능하다. 물론 여전히 뿌리깊은 중앙으로부터의 새로 분리형 행정이 존재하고 있지만, 점차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변화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필요성에 따라서, 公政, 環境部門, 住民部門, 企劃部門, 文化藝術部門, 쓰레기 부문 등의 조직들이 조성, 신설, 통폐합 되고 있으며, 지방시민을 위한 자치, 새로운 문제에 대응하는 자치, 그리고 자주적인 종합성을 추구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의미가 팽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종합적 정책 능력의 조직으로서의 기획 조정 부문도 지방자치제가 지방자치체로서의 자주성을 갖기 위해서는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때나하면 단지 종합적 장기 계획의 책정과 회의의 조직, 기타 참부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중앙으로부터의 쉼돌이 들어진 縱分割型 행정에 대해서 확실히 지역 측면으로부터의 구도를 가진 획직 라인(line)을 통해서 지역 행정에 새로운 질의 개념을 포함하여 행정내 뿐만 아니라, 주민과 지역에 있어서 다른 기능도 포함하여 실천적

인 종합성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좋은 의미의 선거 정치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대국적으로 지역 조정을 해 나가는 정책이 세워지고 실천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림-1) 세로 분리형 문화행정



그런데, 과거 권남적으로 언급했던 문화행정은 종래부터 있었던 ○○행정, 즉 도보행정, 건축행정, 민생행정, 위생행정, 환경행정, 교육행정이라는 것을 가운데 일련의 縱分割型 行政의 하나로 보아 왔다(그림-1 참조).

(그림-2) 가로 분리형 행정의 문화화



이러한 의미의 문화행정은 과거 문화공보부와 현재의 문화관광부가 컸으며, 이것은 앞서 언급했던 종합적인 정책 주체로서 지방자치행정을 구체화 하였다는 의미보다는, 새로운 문리되어 곁어지 있는 행정이 첨가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행정의 문화화를 의미하는(그림-2) 그 흐름이 시민으로부터 시작하며, 이것이 지방자치제 속에서 融合 融合된다. 그리고 문화화라는 움직임을 통해 각 融合型 行政은 지방자치제 행정으로서의 반성을 더하여, 종합적인 정책 주체로서 시민에게 행정을 서비스하게 되며, 정부 조직인 각 部에서도 지방자치제 측면에서 필요한 정책을 원하도록 조정해 가는 주체가 되는 것이다.

문화의 경우는, 문화행정을 하는 곳이 문화적이니까, 다른 部分(Section)은 비문화행정, 비문화적이어도 괜찮다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문화공보과를 강화해도, 어차피 행정측에서는 廣義의 문화행정 담당자만으로 끝나지, 그것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근일을 하기까 어렵다. 왜냐하면 문화는 融合的으로 익숙한 용어가 아니며, 참된 의미에서 문화행정을 하고자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문화화는 근본부터 행정 전체를 문화화 하지 않고는 문화행정을 행정의 문화화라는 말로 나타낼 수 없다.

따라서 의왕시는 문화공보과에서 의왕시의 주요 문화행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의왕시의 문화적 특성을 개발하고, 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 시켜주기 위해서는 재정지원 및 정책지원뿐만 아니라 의왕시 500여 공무원의 문화화에 대한 노력도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시장은 공무원들이 문화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할 것이다. 이러한 예로 “배극기를 휘날리며”, “살미도”, “발죽거리 관동사” 등의 영화를 관람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방법도 있다. 또 공식적인 회의를 하기전에 사설패놀이를 관람한다든지, 성악가의 음악을 듣는 등의 프로그램이 만족적으로 이루어지면 의왕시 공무원의 문화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2) 김성순 전 송파구청장, 심재하 전 수원시장, 그리고 한재영 전 부천시장은 이른바 문화시장과 구청장이라고 한다. 이들 자치단체장들은 문화정책을 추진하면서 문화정책 담당자인 공무원들의 문화마인드를 강조하였다. 즉 이들 자치단체장들은 회의시작 전에 사설패 놀이 등을 관람하고 회의를 시작 한다든지, 또는 공무원들에게 영화 티켓을 주고 가족과 함께 영화를 관람하게 하는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공무원들르 하여금 문화적 마인드를 갖게 하였다.

Ⅲ. 行政의 文化化 原理

행정의 문화화란 “행정 전체를 문화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다. 즉 과거 뛰어난 의미와 본래의 취지에는 관심도 갖지 않고, 오로지 안일과 부사 안일을 바라는 원리를 지나치게 우선시 한다든지, 행정 속에서 요구되는 많은 가치를 억누르고 있을 기계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을 불태서, 하여도 인간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활동을 의미한다.

행정의 문화화가 행정에 있어서 나타나는 작용을 그림으로 표시해 보면 (그림-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3)을 보면, 종래 관료적 문화행정과 1980의 행정으로부터 한 번에 시민문화창조로 연결한다는 것은 어렵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과거 관료적 행정행태에 대한 반성과 함께 문화화가 先行 됨으로서, 행정의 문화화가 가능하다고 본다.

(그림-4) 行政의 文化化의 Dynamiam



하이카미(高千穂)縣은 행정의 문화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인간성, 지역성, 창조성, 미관성 등 네 가치를 중점으로 강조하였다. 그러나 다소 다른 관점에서 행정의 문화화를 조직과 개인이 어떻게 인식해 볼 것인가에 대한 원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固定觀念의 排除와 柔軟한 事故다. 즉 '법령에 있습니다', '전례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것 자체에도 문제의식을 가짐이 하며, 또 전례가 없다 하더라도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즉, 법령 만능 주의, 전례 만능주의,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의 權分割化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견하여 인간적인 자유로운 사정으로 되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둘째, 積極的이며 創造的인 意涵이다. 이것은 다른 자멸한데 말을 들었다가나, 원사람이 말한다고 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납득하고, 또 적극적인 의욕을 가지며,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나가는 것이다. 즉 제도적으로 정착된 자치행정은 새로운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것을 창출해 나가는 의욕이 필요하다. 문화도 마찬가지로, 단순한 용내와 추종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겠다는 창조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셋째, 綜合的 觀點의 確立과 獨善性의 排除다. 독선적이고 자신의 틀에서 벗어나, 좀더 넓고 차별있는 행정, 시민생활과 그리고 세계와 우주로까지 넓힘으로서 시야를 갖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행정은 각 부서마다의 논리를 갖다 보면, 독선적이고 자신의 시야가 형성됨으로서 행정 현실을 좁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 독선형에서 폭이 넓은 종합적 시야로 전환해야 한다.

넷째, 새로운 價, 새로운 가치의 발견과, 그 실현을 위한 행동이다. 시민에게 있어서 보다 좋은 가치가 무엇인지 항상 추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양뿐만 아니라 질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하며, 찾아낸 가치는 이념으로서만이 아니라 이것을 실현해 가는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또 인간적이고, 선 식반격이며 미래적, 종합적인 지각을 갖게 되면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일이 요구된다. 거기서 행정은 事實의 처리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일을 현실화하는 장소가 되며, 그 가치 속에는 종래 행정에서 빠져 있던 아름다움과 유쾌함, 그리고 전 인간적인 가치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

다섯째, 行政目的의 反省과 自治로부터의 재발견이다. 이것은 전체적인 행정목적에서 개별적인 행정목적의 반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주적, 주체적인 시민이 자주와 공동의 힘에 의해서, 보다 좋은 공동 환경을 만들고 환경을 풍부하게 하는 작업이며, 자치행정정은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내는 제작이고, 기술을 갖추는 것이다.

그러나 문화를 논하면 적어도 이러한 원리에 대해 행정이 반응하지 않으면 안된다. 사이타마현처럼 처음 자신의 지역을 자신의 문제로서 구축해 나가야 하며, 스스로가 스스로를 찾아내고 하는 것이 문화라고 말할 수 있다.

IV. 맺는 말

이제 행정의 문화화는 논의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각 조직과 각 사람이 주체적인 문제로 수용하여 실천해 가야 한다. 문화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지방자치제가 앞에서 언급한 문화회의 원리로 움직이는 시민의 지방자치체이고, 지역정책의 주체라면 별문제가 없다. 이러한 지방자치는 적극적인 면장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추구해 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는 행정의 문화화 비인드도 없이, 단지 정책적인 의지 하나만으로 문화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즉 각 지방문화원에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문화사랑방”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장관의 정책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문화의 집”을 추진하는 것은 “행정의 문화화” 보다는 “문화의 행정화” 의식이 더 크기 때문이다. 특히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도 직선단체일이 들어치면서 지방문화예술 정책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일련의 문화행사가 행정의 문화화 비인드가 전개되지 않으면 실시된다면, 그것은 단순히 “일회성 문화행사”나 선거 때 “票를 얻기” 위한 문화예술행사로 전락될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정부도 문화예술진흥 사업만 추진하는데 집착할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조직과 관료들이 “문화화”에 의도를 갖도록 노력하는 것이 선결 과제다.

이와 같이 의왕시 행정조직에 행정의 문화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의왕시의 문화예술정책과 문화예술진흥은 100%인 행사가 아닌 선행력을 갖게 되며, 15만 의왕시민들은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면서 의왕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이 더욱 커질 것이다.

셋째마당



은울탈춤의 셋째양반

부채 - 서경자

나비의 여행 - 주영애

김치를 썰며 - 서유순

의자 - 서유순

문화, 역사를 알고 난 후 우리 시를 사랑하는 마음이 배가 되었어요 - 신정애

가을을 찾아서 - 조영선

나의 사랑 의왕 - 임영희

부 채



서 경 자
의왕시여성문학회
전 회장

명백있는 어릴땐 사이 사이
질루른 속음은
살라 실랑 사람을 일으켰다

사람으로 치상된 너풀지밧은
관남의 연을 놓아주고 싶어
매듭진 울음

하나 둘 풀여해져
풀을 가리는 바람에 날려 보냈다

함께한
가장 소중한 직전끝이었기에
쌓여만 가는
갈아아 할 부채가 너무 많아

부채살 그리움 난 부둥켜 안고
그대로

바람에 날려 보내기로 했다

나비의 여행



주 명 애
의왕여성문화회원

꽃 먹인 한산모시
씨 날 같은 실래일
아른아른 맥 꿈에서 깨어나
바람처럼 가벼운 날개 하나로
미르 같은 끝파가 긴
터널을 빠져 나와 끝없는 방랑
뉘 힘 앞 기웃거리다
월담하여 운명 같은 遭遇
함박꽃 소리 없는 웃음 속에
한 밤을 輪廻하고

오늘은
얼 한세 고운 삼베 솜음이 열여 한
치자 별 향기 같은
환상의 날개 위에
젖눌린 고독을 털고
가파른 언덕배기 물결 차는 싸리 꽃
그 차가운 절조를 집합한다

그렇게 잉태하고 가는 물

얼룩쟁이처럼 사나운 호랑나비
초여름 흐드러진 들 꽃 찾아
면-길 떠난다

김치를 썰며

서 유 순

‘이런 거 먹으면 사립 두 번 간다’며 김치 밑둥이를 아낌없이 잘라 버리던 친정 어머니.

김치를 사다 먹는 집이 많아질 요즘, 김치 한 포기 썰면서도 거기에 담아야 할 정성을 가르쳐 준 어머니 말씀이 결혼 후 한 갑동없이 살수있는 밑거름이 되었다.

작식 남고 20년, 마치 태 살의 한 쪽면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친숙해 존재를 잊어버릴 때도 있는 남편이지만 밥을 남기거나 찢기침만해도 가슴이 찢릴 새려않는 소중한 사람이다. 이제는 혼자보다 같이 있는 것에 더 익숙해져 혼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나이가 되었지만 신혼 때는 실 실은 뭉김척처럼 머우러지치 못 하고 다투기도 했다.

결혼 5년째 되는 봄이었다.

TV를 보며 누워 있는 남편에게 막내 시누이에 대한 불만을 늘어놓으며 풍악풍악 바자지를 긁었다. 듣다 못한 남편이 노릇없이 일어나더니 장문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문쪽에 사발만한 구멍을 뚫어 놓았다. 처음 보는 남편의 폭력에 가슴이 동당거리고 정신은 혼미해졌다. 날 밝으면 끝장 내겠다고 뜬눈으로 밤을 새는데 병원에 옮긴 가구들이 새삼스레 싫어 갔다. 살면서 하나, 둘씩 애써 불만하고 존재 묻혀 가며 길들인 것들이다. 그렇게 침상들인 자것들과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저녁때 먹은 김치가 속에서 요동을 치며 올라오는 듯 했다.

어머니는 딸의 이런 일을 예견이라도 하였던 것일까 김치 담글 때 마다 속간을 할때야 김치 맛이 제대로 난다며 배추를 꿰고루 만지던 어머니 얼굴이 떠오른다. 결혼생활도 뿔뿔 살아 있는 격기를 슬죽이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고추가루와 배추기 서로 몸을 비벼대며 깨살처럼 공작야 가듯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남녀가 한집에서 지내는데 이만한 갈등도 없다면 영영 배추 따로 고추가루 따로 인 채로 살수 밖에 없다.

무덤바야에 주저앉은 채 새벽까지 눈이 뚱뚱 붓도록 웅었다. 다음날 아침 말없이 출근하는 남편을 배만다에서 내려다 보는데 둘이 함께 뻗던 시간들이 영상처럼 남편을 따라잡는다. 참고 건디기보다 먼저 짜증을 내고 깊이 생각하기 보다 감정을 앞세워 싸움을 거는 걸 언제나 내 쪽이었다. 모든 투쟁을 침묵으로 지켜 주던 이제까지와는 다른 모습의 남편. 이 사람도 화낼 줄 안다는 게 분명하고 배신감마저 들었지만 한쪽으로는 모든 생활을 내 위주로 살기위해 너무 들쭉았나 보다 차라리 들어 미안한 생각도 들었다. 그 날 오후 ‘밥 먹었느냐’며 전화로 화해를 청했을 때 두말없이 ‘밥 먹었어요’ 그 말로 인해 결혼 후 길고 길었던 자존심 싸움도 내중 끝이 났다.

그 날 구멍 난 상통은 골거나 뻐지 않고 잘 아물며 천리품처럼 안방을 차지하고 있다. 그 상처에 참을 '인'자를 대신 써 붙여 놓고 볼수록 화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들여다본다. 경솔함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한 우리집의 보루이다. 요즘도 가끔 남편과 딸다름은 하지만 그 천처럼 크게 뻐지지는 않는다. 나이가 들면서 생각도 순디어지고 기운이 떨어진 탓도 있었지만 혹시 40살만에 이르기까지 김치 밑동을 잘라내고 백은 뇌분은 아니었을까.

얼마 전 친구가 어혼했다며 찾아왔다. 애교 많고 자분자분한 성격을 가진 친구가 언제부터인가 말수가 줄어들고 평소 하지 않던 행동이 찾아졌지만 곧 좋아질 것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파경을 맞은 것이다. 그 동안 가정에 무관심한 남편과 살면서 얻은 부거래와 지나친 허탈감에 잠시 방황한 것이 화근이 되었다고 한다. 어린 나이에 결혼해 이미 낳고 살림에 묶여 사느라 외로움을 느낄 여유도 없이 그제 처녀이라 믿고 살았는데 때 어크게 찾아온 갱년기가 발목을 잡았고 그렇게 상실감에 빠져 힘들어 하는 친구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상황을 좋지 않은 쪽으로만 돌아 붙이며 폭력까지 휘둘러 대는 남편에 대한 반발심으로 친구는 외출이 잦아졌고 술 마시는 날도 늘어났고 점점 멀어지는 남편과의 간격을 좁힐 수 없어 결국 파경을 맞고 말았단다.

요즘 젊은 부부 세 쌍 중 한 쌍이 이혼한다는 보도를 신문에서 본적이 있다. 황혼이혼도 늘어 가는 추세라는 기사를 먼 나라 흥미거리처럼 읽었는데 막상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보니 가슴이 답답해진다. 현재 웃고 울었던 많은 시간들을 잊어내고 흐려 내는 아픈 작업을 감내하면서까지 이혼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친구를 생각하며 밑동을 깔끔하게 잘라내고 김치를 썰다.

어린 딸에게 작은 것에 정성을 쏟아야 큰일을 무리없이 해낸다는 가르침을 걸시 한 토지로 전하려 했던 어머니의 마음을 친구에게 전해주고 싶다.

가치런히 썬 김치를 모양있게 달듯, 친구의 열정도 골작은 김치처럼 자리잡아 기가를 바라면서.

의 자

서 유 순

모처럼 참자리에든 아이들 사이를 파고 들었다. 귀찮다고 할 줄 알았던 아이들이 엄마랑 자겠다고 서로 끌어안는다.

아이들 사이에 누워 있으니 그 동안의 일들이 아득한 옛날처럼 떠올라 쉽게 잠이 들지 않았다.

보통의 여자아이들보다 몸집이나 키는 크지만 외모에는 유난히 둔한 착한아이.

거울을 보거나 예쁜 옷을 탐내거보다 더 맛있는 음식이나 더 편한 곳을 찾아내는 데 관심을 보였다. 그런 아이가 언제부터인가 내 의자에 앉기를 좋아하고 틈만 나면 의자를 빙글빙글 돌리며 재즈를 피웠다. 아이들 것과 색깔만 다른데 이상하다 싶어 이유를 물었더니 그냥 엄마 것이라 좋다고 한다. 참을 자주 비우는 엄마대신 그 의자에 앉아 엄마의 정을 느껴보려 했던 아이의 마음이 보여 가슴이 웅장했다.

내게도 좋은 옷보다 맛있는 음식보다 엄마의 참속이 더 그윽했던 어린 시절이 있었다.

장남인 아버지가 분가하면서 유난히 착할 줄 따르고 불감성이 좋았던 나를 할머니 말벗이나 파라마 패어놓았고 부모님들속에서 웅석이나 파울 나이에 혼자 가족과 떨어져 외롭게 자랐다. 할머니와 살던 집은 동그면 성당지붕이 태청마루 사이로 보이는 성북동 산기슭에 있었다. 뉘엿뉘엿 해가 잘 무렵, 저녁 준마를 하느라 집집마다 굴뚝에서 연기가 빠르게 피어오르고 비둘기조각 재깍 잘라 앉느라 성당지붕 위로 빙빙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면 불현듯 엄마 얼굴이 떠올라 흥분했다.

종교으로 온몸이 불덩이가 되었을 때도 엄마대신 할머니의 포근포근한 꽃목자를 타들으며 열을 식혔다. 변변한 친구하나없이 어른들 존에서 차라다보니 언젠부터인가 사람들과 어울리는걸 싫어하게 되었고 거울 속에 있는 나와 얘기하는 재미에 빠져 들었다. 거울 속에다 집을 집을 찍어놓았고 가족을 그려 넣었다. 그렇게 좋은 거울과 증언거리며 놀다 지치면 잠이 들었다. 그 버릇은 꽤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요즘도 화장 할 때면 가끔씩 거울 속에 사는 나와 이야기를 나눈다.

그런 기억이 있어서인지 아이를 키우면서 피도록이면 곁을 비우지 않으려 했지만 남편이 가져다 주는 변한 봉급으로는 아이들 교육을 제대로 시키기 어려울 것 같은 조급증이 일었다. 그러다 작은 팔미이가 유익원에 입학할 무렵을 무렵 상하 학교 옆에 작은 마이스크림 가게를 차렸다. 살사는 재법 팔렷다면 문제는 아이들이었다. 손님으로 오는 아이들에게는 상냥한 웃음과 타절한 말투로 대하면서도 어쩌다 내 아이들이 가게에서 열병거리면 알른 집에 가라며 눈을 부라렸다. 올상이 되어 들어가는 미익의 뒷모습이 가엾지는 했지만 뒤늦기가 달래 줄 수는 없었다. 늘 다른 아이들 속에 둘러 쌓여 있는 엄마를 먼발치에서 미려만 보고 있는 커이들. 무업을 시

작하면서 그렇게 조금씩 엄마의 빈자리가 생겼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자제 문을 닫았고 늦은 저녁을 먹으면 빗고 잡들기 바빠 아이들이 상치받고 있는 줄 몰랐다. 큰아이는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재벌 철이 들어 있었지만 한참 엄마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했던 작은 아이는 달랐다. 아이는 날로 산만해졌고 초등학교에 입학했지만 학습능력은 다른 아이들보다 떨어졌다. 학습은 거닐 학교생활에 적응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이로 점점 변해갔다.

집단이 필요했다. 여유있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이점도 있었지만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아 가게를 정리하고 가정으로 들어갔다. 도란반에 가정에 평화가 찾아온 듯 했다. 하지만 아이는 일개 엄마에게 다가서지 않았고 늘 주변을 빙빙 돌기만 할뿐이었다. 학교생활도 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문제만 늘어 가던 어느 날, TV에서 파들림 받는 아이에 대한 본래를 다루는 프로그램을 접하게 되었는데 그 아이들의 고민은 놀라운 것이었다. 공동으로 하는 과제나 숙제를 할 때 같이할 친구가 없어서 애를 먹기도 하고 그 때문에 친구가 잘 나오지 않으면 뒤에서 비난하거나 노골적으로 욕하는 친구들 때문에 심한 오욕감을 느끼지만 그저 참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하가 죽고 싶다고 했다. 특별히 잘못된 것도 없는데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자신을 멀리하고 심지어 심이 같은 말한이어도 일부러 먼길로 돌아가는 친구들을 이해할 수 없어 고민하는 학생도 있었다. 세력을 가진 아이를 중심으로 뭉쳐 다니며 한 아이에게 집중적으로 공격하며 집단 따돌림을 하지만 파들림 받는 아이들 대부분은 부모님께 자신! 이 따돌림 받는 것을 말하지 않고 있었다. 수치심과 보복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결국 아이들은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한쪽 귀퉁이에 혼자 앉아 있는 아이로 변하기도 했고, 정신병으로 고생하는 아이도 있었다. 한자리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두서없이 떠돌아대기도 하고 온몸을 흔들며 대는 그 아이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걸도는 이유를 서둘러 말하고 있었다.

PD는 그 프로의 끝부분에 이렇게 말했다. '가래하는 학생이나 당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해보았더니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자녀에 대한 무관심이었으며 그것은 곧 방치로 이어져 학교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무관심은 자녀와 벽을 쌓는 일이며 그것은 곧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겁이 났다. 저 화면 속의 일들이 언제 내 일로 다가올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 때부터 둘 사이에 생긴 벽을 허물기 위해 접근해 보았지만 그 벽은 생각이상으로 빳어져 있었고 쉽게 줄어질 것 같지 않았다. 가까운 곳으로 아이를 데리고 나갔다. 환심을 사기위해 비슬관이며 박을관 놀이동산으로 이 곳 저 곳 정신없이 쏘다다리며 노력했지만 어디를 가도 낯답한 벽뿐이었고 엄마가 내민 손을 잡아 주는 데까지 많은 시간을 요구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고 초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는 요즘 사춘기에 접어든 예쁜 중학생이 되어있다. 이제는 재벌 친구들도 사귀고 학교생활에 흥미를 보인다. 무엇

모다 엄마에게 웃으며 농담을 걸어 올 때면 더없이 기쁘다.

어릴 적 막연히 엄마를 그리워하여 거울을 보며 자라나 막상 엄마를 같이 살게 되었을 때는 서먹서먹해 천천히 다가서지 못했고 그런 채로 어른이 되어버린 나처럼, 이이도 그렇게 자랄까 일러가 있었는데 다행히 지난 시간의 그림자는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달처럼 환하게 웃는 아이가 예쁘기만 하다.

그 동안 편안한 조건을 만들어 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은 들었지만 어떻게 그 마음을 전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다 아이들과 하룻밤 보내며 속마음을 전해야겠다 마음 먹고 아이들 옆에 자리를 뒀다. 싫다고 할 줄 알았던 아이들이 서로 품 속을 파고드는 모습이 사랑스럽고 고맙기만 하다.

어느새 곤하게 잠든 아이들,

언제든지 이 아이들이 커지고 외기 손잡해 있을 때 편안한 휴식이 되어주고 기쁠 때 세상을 다 가진 듯 베풀 때 그 즐거움을 받아 주며 무슨 이유로든 나를 찾지 않을 때 그것을 눈치채고 먼저 걱정해주는 그래서 언제나 지친 몸을 기대 앉을 수 있는 그런 의자가 되고 싶다.

문화, 역사를 알고 난 후 우리 시를 사랑하는 마음이 배가 되었어요

신 정 애

십이 년 전 가을 결혼을 하고 의왕에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태어나 자란 서울에서만 살다가 공기 맑고 아름다운 모하산 기슭으로 온 후 어느 날 새천랑(?)이 날렵하게 감나무에 올라가 파다주는 달콤한 감 맛과 후싹뽕싹한 밤송이에서 쫄쫄 꺼내주는 밤 맛에 그만 너무 반해서 의왕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연 속에서 폭 취해 살면서 어느새 아기엄마가 되고 마루형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점점 자라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의왕시 에 대해 꼭 알아두어야 할 유익한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하던 중 마침 의왕문화원 의 향토문화연구소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1기 향토역사문화학교의 「당사와 함께 우리고장 바로 알기」에 참가하여 “우리 고장에는 언제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을까?”를 시작으로 우리 고장의 각 지명의 유래와 전설에 대해서도 배웠고 의왕시의 문화재와 유적을 답사하고 대보름날에는 문화원 앞 논에서 대보름맞이 민속놀이도 하였습니다.

송돌래와 함께 아이들이 집집마다 돌며 얻어온 갖가지 나물과 오곡밥 등을 큰 그릇에 넣어 함께 쫄쫄 비벼 나누어 먹으며 귀불놀이, 달집태우기 등을 했던 것은 아이는 물론 내세도 아주 새롭고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달집에 관한 유래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달집이 고루 잘 바오르면 그 해 농사가 흉년이 들고 도중에 꺼지면 흉년이 든다고 하고 달집이 타면서 넘어지는 쪽의 마을이 풍년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달집 속에 넣은 대나무가 불에 타면서 터지는 소리에 마을의 악귀들이 날아났다고 하며 논에서 달집을 태우면 그 논이 농사가 잘된다는 설명도 해주셨습니다.

그 후로도 한 달에 한번씩 「의왕의 인물과 유적을 찾아서」라는 3차에 걸친 답사 프로그램에 아이와 함께 참가하여 1차 청계시외의 유적답사를 시작, 2차는 고천, 오천동 지역 3차는 부곡동 지역을 답사하며 향토문화연구소의 임영규 소장님과 연구위원이신 무성고등학교 조준규 선생님의 상세한 설명을 통해 실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특히 청계사에 답사를 갔을 때는 청계사의 주지스님이신 청행스님께서 친히 나오셔서 청계사의 역사를 설명해주셨고, 부곡에 위치한 알각보를 답사 할 때는 안향 선생의 후손이신 안경찬님께서 높으신 연세에도 불구하고 의관을 차려 입고 나오셔서 친절히 맞아주시며, 안향 선생의 업적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주셨다. 위열대군 을 모신 묘와 사당에 들렀을 때도 위열대군 의 18대 종손이신 이택남께서 나오셔서 명분



객들을 위해 조선의 역사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시의 자랑인 철도박물관을 비롯해서 하우현 성당, 오봉산의 고인돌, 철조에서 화성에 행차하실 때 쉬어 가셨다는 사근행궁 터, 근대 화제의 대학자 이시 이희승 박사님의 별가 터, 큰 업적을 남기신 조상님들의 선도비등 을 두루 감상하며 우리 시 뿐 아니라 우리 나라의 역사에 관해서도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귀중한 기회를 통해 우리 시의 유적에 대해 공부도 많이 하였지만, 무엇보다 아이와 함께 의왕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도 들뜬 즐기며 의왕시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한 자부심도 키울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아이의 학교 수업 중 사회 과목에 직접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의왕시는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득 안고 있는 도시입니다.

최근 아름다운 자연과 맑은 공기를 찾아 의왕시로 이주해 오는 많은 시민들이 의왕문화원의 향토문화연구소의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함께 동참하여 의왕시의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게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향토문화연구소에서는 시민들과 더욱 밀접하고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로 눈부신 활약과 번창을 하게 되기를 기대해 합니다.

유익한 배움의 기회를 주신 의왕 문화원장님께 감사 드리며 향토문화연구소의 소장님과 여러 연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을을 찾아서

조영선

9, 10, 11월 '의왕의 인물과 유적을 찾아서'라는 제목 하에 진행된 답사에 초등학교 3학년인 둘째 아이와 함께 참석하게 되었다. 답사는 우리 의왕 지역에 맞추어 1차는 청계지역, 2차는 고천지역, 3차는 부곡지역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불행히 1차 답사는 참석을 하지 못했는데 2, 3차 답사를 하면서 1차 답사를 하지 못한 것이 무척이나 아쉽게 생각되었다.

지금의 고천동사무소와 그 주변지역이 예전에는 사근행궁 터였다고 한다. 조선 22대 정조가 부왕인 사도세자의 능이 위치한 수원에 행차할 때 쉬었다가 가던 행궁이 있던 곳이 지금은 정조의 효행을 기리는 기념비만이 울씨던스롭게 남아 있을 뿐이었다. 그나마 많은 주차로 인해서 제대로 볼 수도 없었다. 해설사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머릿속으로 그 시절 행궁의 크기며 왕, 행차시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밖에 없었다. 정조대왕이 11차에 걸친 수원으로의 능 행차 중 5번을 이 곳 사근행궁에서 머물다 가셨다고 하는데 그런 유서 깊은 곳에 안내판 하나 없고 기념물 하나 없이 이렇게 방치돼 있다니 참 안타까운 일이었다. 여기에 비해 의왕시와 수원시 경계에 있는 사적대 고개에는 정조의 지극한 효성을 추모하는 200년이상된 지지대비가 있고 그 아래 효행기념관이 자리 잡고 있었다. 효행기념관에는 유물뿐만이 아닌 정조대왕의 효행일화가 글로 전시되어 있는 등 우리 후손들이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꾸며져 있어 우리 의왕시와 수원시가 크게 대조가 되었다.

고천동에서 백운산 쪽으로 길게 이어질 왕곡동은 청풍 김씨의 집성촌이다. 그래서 그곳은 조선시대 생재상 김일백, 김유등 형통 김씨 가문의 이름난 문장의 선조며, 묘소가 많고 보존도 잘되어 있었다. 백운산 아래에는 청풍 김씨 조상께 제를 지내는 제실도 옛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백운산 능선에 있는 백운사는 고종 32년에 청풍 김씨 종중에서 세웠으며 경기도 지정 전통 사찰로 지정되어 있다. 마을 중앙에는 오백년 이상 된 은행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는 청풍 김씨와 역사를 같이 하고 있었다. 지금은 선죽을 해서 이천한 마을회관이 은행나무 근처에 있었고, 왕곡동의 모든 행사가 열리는 곳이기도 하였다고 한다. 정조의 학성 즉성에 사용된 기와와 벽돌을 만들었던 외벽소도 이곳 왕곡동에 몇 군데가 소재해 있었고 지금도 큰 벽돌들이 산재해 있는 것이 발견된다고 한다. 이렇듯 왕곡동 일대는 옛 문화 유적지가 산재해 있는 곳이지만 우리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기도 하다. 이런 답사 기회가 없다면 전혀 알 수 없는 곳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백운산 아래 너무나 아름답게 자리 잡고 있는 월림(왕세릉)마을, 이곳도 버지 않아 개발이라는 명목 아래 사라진다고 하니 마을 한구석이 아파 왔다.

의왕시청을 통해 안고 있는 오봉산, 산봉우리가 다섯 개라 오봉산이라고 고창학교

소풍 때 선생님께서 알려주셨던 것이 생각이 났다. 달동방향에서 오봉산을 오르다 산 중턱에 고인들이 있었는데, 먼토 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들에 불과해 보였다. 그러나 재설사 선생님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직접 만져 보니 그 느낌이 다르게 다가왔다. 아이들도 진기해서 재차 만져보곤 하였다. 아이들도 나중에 이 고인들을 다시 접하게 될 때는 훨씬 더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될 것이다.

‘百聞以不如一見’ 이라고 비디오를 보고 책을 아무리 많이 보고 듣는 간접적 체험을 하는 것 보다는 역시 직접 느끼고 체험을 해야 기억에 남는다는 것을 답사를 통해서 더욱더 느끼게 되었다. 이 또한 답사의 매력이라 하니까 싶다. 어른, 아이 할애 참석한 이번 답사여행은 어른들에게는 괜찮지만 아이들한테는 좀 어렵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써 가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우리고장의 문화, 역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재미있고, 쉬운 답사가 많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든다. 여러 날 답사를 위해 애쓰셨던 선생님들과 동행한 여러분들께 감사함을 표하고 싶다.

나의 사랑 의왕

임영희

현재 인구 약 15만의 우리 의왕시는 어떻게 생겼었고, 어느 시대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을까?

고인돌하면 주로 몇 개에서 말려있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고인돌들은 높은 산에 위치하고 사방 모두가 청교하게 다듬어졌음을 알 수 있다. 석질이 화강암으로 되어 있는 밑개돌 윗면에는 많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지면서 자손을 얻기 위해 기원했던 2~3cm 정도 여러 개의 성혈을 볼 수 있다.

그런 고인돌과 성혈을 확인해 보며, 어쨌든 아이들 모두가 우리 지역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에 대해 신기해 하였다.

이런 흔적이 남아있는 모습에서 '아! 정말 우리 지역에 오래 전부터 사람이 살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했다. 이같은 우리 지역의 좋은 공기·문화유적들을 보면서 몇 초 관심 없이 생활해 왔던 것이 부끄러웠다. 이후부터는 지역의 문화재에 먼저 관심을 갖고 직접 다녀보고, 이렇게 좋은 내 고향 의왕 대해 자부심을 갖고 널리 알리고자 한다.

조선의 22대 왕인 정조는 양주 매봉산에 있던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를 수원 화성에 있는 현릉원으로 옮겼다. 왕을 모시고 가던 중 이곳 사근행궁에서 쉬어 갔다고 한다. 이후 이 곳을 기념하기 위해 10월 6일을 시민의 날로 제정하였다고 한다.

현재 이 곳은 동사무소로 시민을 위한 편의 시설 등을 갖추고 개방,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아주 작은 표석 하나가 있어 이곳이 효도대왕으로 알려진 정조대왕이 쉬었다 가던 곳임을 알려 줄뿐이다.

아쉬운 점은 정조의 효행을 기리는 기념비가 있지만 주차문제로 인해 알 수도 없다는 것이다.

정조는 그 후에도 수 차례 이곳 사근행궁을 들렀는데, 당시 마을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볼거리였을 것이다. 효행로라는 이정표를 보았을 때, 비루이 따름이 따듯한 정조의 위대한 효행을 우리 모두 느낄 수 있었다.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곳이 꿈나누는 어린이들에게도 전학의 장소로 자리잡았으면 하는 욕심도 생겼다. 사근행궁에 관련된 사진이나 문헌 등이 남아 있는 게 전혀 없어 당시의 모습은 각색하 알 수 없고, 추측해 볼 따름이어서 아쉬웠다..

의왕을 빛낸 인물로 국어대사헌을 면서한 국어학 연구에 선구자이신 일석 이희승 박사의 생가 주변에 시 나무인 커다란 느티나무가 다섯 그루정도 있었는데, 전쟁 때 이 느티나무를 일본사람들이 배를 만들기 위해 모두 베어버렸다고 한다. 이곳은 현재 소유하신 분이 지주하면서 부운적으로 내부를 개조하여 원래의 구조 모습은 사라졌다. 그동안 보존하는 사람이 없었다니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이왕하면 가 볼만한 곳으로 푸른 용이 산머리를 뚫고 나와 흰 구름을 헤치며 하늘로 올라갔다는 전설이 있어 청룡산이라고 불리던 청계산이 있다.

청계산 줄기에 자리한 청계사가 있는데 신라시대에 창건되었다가 원전왜란 때 소실되고, 사찰령에 폐사 당하고, 화재로 사찰이 모두 소실되고, 여러 번 어려움을 겪고서야 지금에 이르렀다고 한다.

아파트에서 문 아래 펼쳐진 의왕시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우리 파왕지역에 희망이 보이고, 인간이라면 살고 싶은 곳, 자연의 아름다움이 있는 곳이니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하는 생각이 든다.

망곡동에 소재하고 있는 원재 김유 선생, 김경의 묘에도 가보았지만 선도비가 있는 곳은 숲 속 산기슭에 있어 미처 기보질 못했다. 김구에 제대로 된 이정표, 정리된 전임도로등 개선할 힘이 많아 보였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모두가 함께 해답에 가야 할 과제일 것이다. 피앞에 설면서 예전부터 구척구척 가보고 싶고, 알고도 싶었던 일들을 오늘에 이르러서야 이루어 좋았다. 이런 보다 많은 기회를 통해 보다 많은 것을 느끼고 싶다.

다행히도 이번 기회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을 만날 수 있고, 내 고장 연구에 많은 관심을 가진 분이 있어서 다행이다. 다시 한번 입장서서 연구에 전념하신 분들의 사랑으로 내고장의 문화유적을 쉽게 남사함으로써 바로 함께 된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좋은 기회가 마련이 되어 우리 시를 일아 가는 활동이 계속해서 이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왕시사편찬위원회 사업보고(중간보고)

박 철 하 (시사 상임위원)

1. 의왕시사편찬위원회 결성과정

1) 의왕시사편찬위원회의 조례 제정 및 의왕문화원 위탁

의왕시사편찬위원회의 결성을 위한 움직임은 1989년 1월 1일 조례 제0006호로 「의왕시사편찬위원회의 조례」가 제정되면서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1987년 5월, 1998년 10월, 2001년 7월과 10월 거듭 조례를 수정 보완한 뒤 2002년 4월 현재의 조례로 개정 완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왕시에서는 2002년 1월 「의왕시사」의 편찬을 추진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같은 해 2월에는 자치행정국 문화공보과에서 다른 시·군의 시사편찬 과정을 전학한 뒤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02년 4월 2일자로 「의왕시사편찬위원회조례개정조례」를 발표하고, 5월에 「의왕시 사투의 민간인학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하여 시사편찬 사업을 의왕문화원에 위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시사편찬위원 및 상임위원·연구원 위촉

의왕시에서는 2002년 5월 상임위원·연구원 모집 공고 및 의왕시사편찬위원회 구성에 착수했습니다. 이를 위해 해당 안을 의왕시, 시의회, 문화원, 고천동, 창계동, 부곡동, 오천동, 내손동사무소에 제출하여 해당사에 대한 추천을 받았습니다. 특히 상임위원(의왕시 거주자) 및 연구원은 시 홈페이지와 소식지를 통해 공모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2002년 7월 시청 본관 소회의실에서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시정에 의해 편찬위원 8명이 위촉되었습니다. 계속하여 제1차 시사편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임위원 1명을 결정 위촉하고 사업추진을 의왕문화원으로 이관할 것을 승인하였습니다.

시사편찬위원회에서는 2002년 9월 의왕문화원 향토자료실에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서는 편찬위원 2명을 추가 결정하였으며 연구원 1명을 승인하였습니다. 같은 달 시청에 의해 추가 편찬위원 및 연구원이 위촉됨으로써 시사편찬위원회의 구성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하여 2002년 10월 1일부터 의왕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실에 시사편찬사무를 위한 공식 활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3) 시사편찬위원회 구성

의왕시사편찬위원회는 2002년 7월 제1차 편찬위원회회를 통해 위원장 및 부위원장

한장을 선정하였습니다. 2002년 9월 최종 완료된 시사편찬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위원장 : 이병규(의왕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장/한양대 교수 역임/정계동)
- ◇ 부위원장 : 박영호(전 의왕읍장/고천동)
- ◇ 편찬위원 : 박지순(부시장), 유관상(자치행정국장), 박상용(시의원)
 박용파(문화원장), 이배(전주이씨 임영대군파 종손/내손동)
 유지음(전 경기도농업기술원장/모전동)
 이규봉(전 부곡신용협동조합 이사장/부곡동)
 김명식(청풍김씨 청병군파 종무/왕곡동)
- ◇ 상임위원 : 박철하(문학박사/중실대 학자)
- ◇ 연구원 : 최현희(이화여대 사학과 박사과정 수료/경기대 강사)

2. 시사편찬위원회 사업내용

1) 사업의 구성

(1) 사업개요

『의왕시사』의 편찬은 총예산 5억 7,9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02년 10월부터 2005년 5월까지 2년 8개월입니다. 『의왕시사』는 모두 7권(4×6매판 양장본)으로 각 권마다 400쪽 내외이며 총 2,000부(CD-ROM 제작)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2) 『의왕시사』의 구성

『의왕시사』의 편찬범위는 2003년 현재 의왕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시기적으로는 선사시대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를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의왕시사』의 각 권의 구성을 보면, 제1권/의왕시의 살터와 발자취:자연과 역사, 제2권/의왕시의 사람과 삶의 흔적:인물과 문화유산, 제3권/의왕시의 삶의 품과 사랑살이:현대 정치와 경제, 제4권/의왕시민의 삶의 열개와 두림:현대 사회와 문화, 제5권/의왕시의 마음이야기, 제6권/사진으로 보는 의왕시의 근현대 100년, 제7권/의왕시사 자료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2) 사업예산 및 사업 수행 현황(2002.10~2003.12)

(1) 사업예산 및 예산 집행현황

『의왕시사』의 총 사업예산은 5억 7,900만원입니다. 2002년도에는 3,080만원, 2003년도에는 1억 4,515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앞으로는 2004년도에 2억 3,352만 4천원, 2005년도에 1억 7,952만 6천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2003년도 12월 31일까지의 예산 집행은 사무비품 구입 및 인건비, 사진촬영을 비롯해 마을기초자료조사(2003.1~2003.5), 민속자료조사(2003.6~2004.5),

수집 - 정리된 개인소장 자료의 복사, 규장각 및 국립중앙도서관 등을 비롯한 여러 기관에 소장된 의왕관련 자료 조사 및 복사, 심포지엄 개최, 집필자 계약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2) 대표적인 사업 내용(2002.10~2003.12)

이연 관계상 대표적인 시사편찬위원회의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003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세 명의 연구사와 상임위원 및 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의왕지역 바깥기초자료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1개월 동안 보증조사를 기한 뒤, 5월에 <『의왕시사』 편찬을 위한 의왕사 기초자료 조사보고서>(169쪽 분량)를 제출하였습니다. 2003년 6월부터는 2004년 5월까지 1년의 기간동안을 예정으로 민속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여 명의 연구자들이 의왕사 전역을 다니며 인터뷰 및 사진촬영, 자료수집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고서는 2004년 5월경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현재 시사편찬위원회에서는 집필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과 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조사 및 수집한 자료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책 및 문서류 : 고도서 500여 권(시사편찬위원회에 복사 보관/100권), 문서류 300여 권
- 사진류 : 3천여 점(사찰제공자 80여 명/1930년대~2003년, 시사편찬위원회 스캔 보관)
- 인터뷰 : 51명(청계동/9명, 내손동/2명, 오천동/14명, 고현동/9명, 왕곡동/6명, 부곡동/18명)
- 사진 및 비디오 촬영 : 각종 의왕지역 기관행사 및 마을 행사, 자연마을, 천과 계곡, 꽃, 새, 나무, 문화재, 묘역 및 비문 등

이상의 자료 수집은 각 지역의 편찬위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써 가능했습니다. 편찬위원장을 비롯해 편찬위원은 물론 개별 소장자가 의왕지역 관련 자료들을 직접 시사편찬위원회에 제공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일부 민속 관련 유물 등이 시사편찬위원회와 문화원에 기증된 경우도 있습니다.

3. 향후일정

그동안 시사편찬위원회에서는『의왕시사』를 편찬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조사와 수집을 비롯해 기획, 육자구성, 집필자 선정 및 계약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향후에는 원고의 수집 및 교열·교정을 기한 뒤 인쇄하여『의왕시사』와 CD-ROM을 발행 및 제작하는 것이 주요 사업내용이 될 것입니다.『의왕시사』를 발행하기 위해 앞서 반드시『의왕시사』의 열람과정을 기할 것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태깅의 업무 내용은 심포지엄 개최, 원고수집, 교열 및 교정, 편집

기획 및 인쇄, CD-ROM 기획 및 제작, 『의왕시사』 발행 및 출판기념, 시사편찬위원회 및 소위원회 개최 등입니다. 이외에도 의왕지역의 사료조사 및 인터뷰는 계속 진행할 것이며, 특히 의왕지역을 알릴 수 있는 역사문화의 발굴 및 자료수집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4. 『의왕시사』 편찬 이후의 바람

시사편찬위원회에서는 『의왕시사』를 일반시민들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나아가 '읽는 시사'에 머물지 않고 '보는 시사'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시사편찬위원회에서는 『의왕시사』의 편찬이 의왕시는 물론 의왕시민에게 소중한 자산으로 남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근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와 문화를 집대성하여 충실하게 기록할 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전망을 내놓음으로써 지역문화 정배은 물론 각 분야별 시정을 기획하고 수립하는 데 중요한 데이터로 활용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의왕시사』가 발간된 이후에는 이를 토대로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재로 다시 태어나길 바라며, 역사문화 교육 및 체험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왕시사』의 편찬이 발의성으로 그치지 않고 전문가와 행정부, 시민의 결합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의 구축으로까지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 2003 의왕문화원 사업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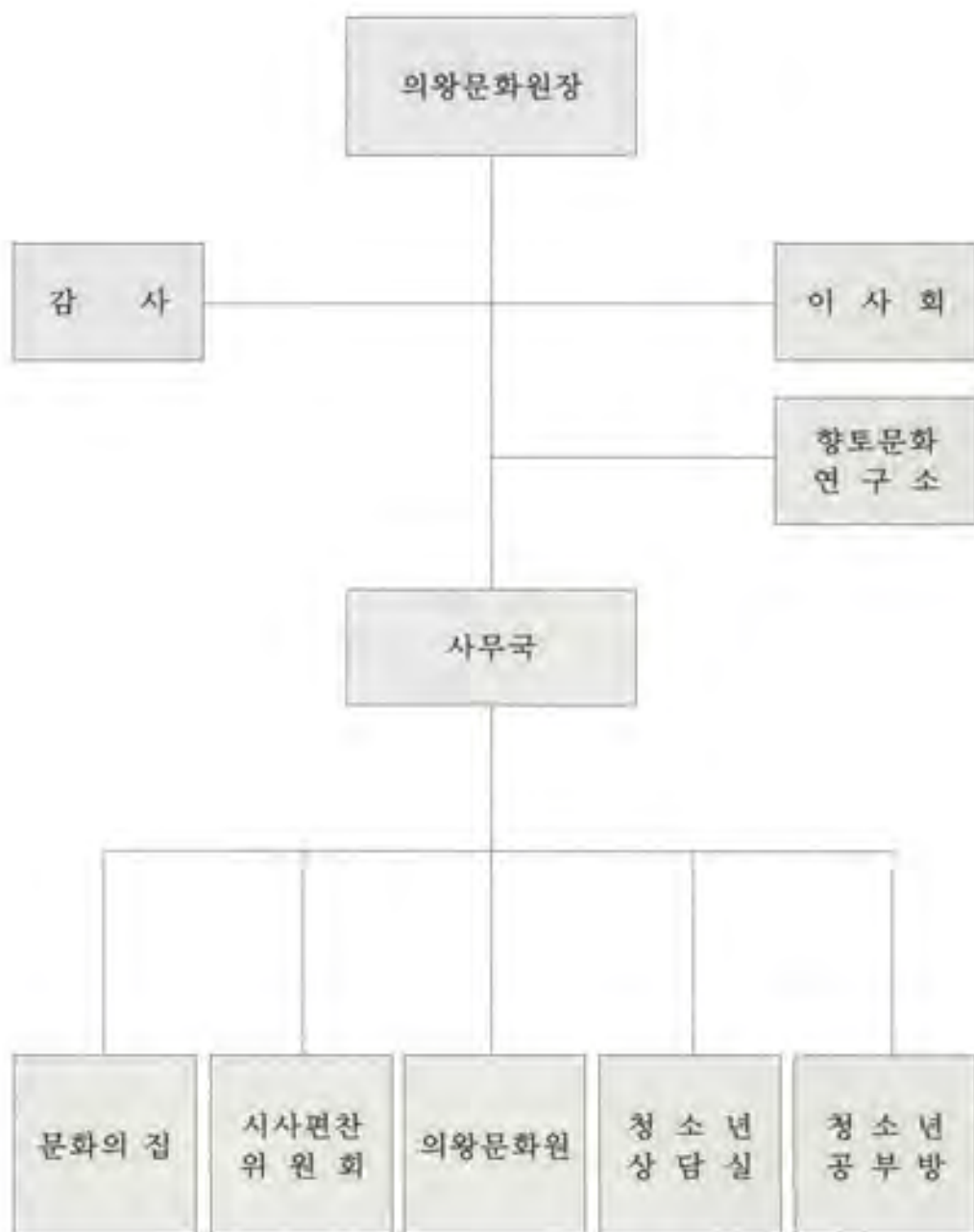
사업 및 행사명	일	시	장	소	내용 및 추진결과	비고
1. 문화원 임원 및 회원 현황					- 원 장 : 1명 - 부원장 : 2명 - 학 사 : 30명 - 강 사 : 2명 - 회원수 : 807명	의왕문화원 회원 및 임원
2. 회의 개최 (이사회, 총회)	1월 21일 4월 3일 7월 8일 8월 21일 10월 27일 12월 23일			의왕문화원	- 총6회 이사회 개최 - 장기총회 (2/19) - 선거관리위원회 개최(8/21) - 문화원 원장 선출(9/10) (2대마운하원장 재임)	임원회의
3. 운영위원 회의개최	3월 25일 9월 18일 11월 27일			의왕문화원	- 문화원 운영위원 회의 (이사회 회의 준비 및 문화원 운영방향에 대한 논의)	
4. 문화원연합회 및 경기도지회 회의	1월 28일 2월 25일 3월 6일 5월 20일 11월 24일			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경기도지회 경기도지회 충원파크호텔	- 제42차 정기총회 - 도지회 이사회 - 도지회 정기총회 - 도지회 임시총회 - 전국문화원장 연합회	원정 원장 원장 원장
5. 문화학교수총일선도출 6. 향토문화 연구소 회의	2월 6~27일 3월 5일 5월 2일 7월 18일 8월 12일 11월 16일			한대학교 의왕문화원	11개교 17명-영향사전1권 - 향토문화연구소 총회(3/5) - 향토유적답사 관련건 협의 - 괴왕의 인물과 유적을 찾아서 - 모스터 제작 협의 - 문화유적 이장표 제작 권	원장, 사무국장 향토문화 연구소위원 사무국장 사무관사
7. 평생학습관 회의	2월 20일 5월 29~30일 10월 22일 12월 9일			교육청모원 경기도지회 평보연구원 의왕문화원	- 평생학습관 운영, 정보센터제회 - 학습조사 - 평생학습관 관계자 연수 - 괴왕시 관내 평생학습관 관계자 연수	사무국장 사무관사
8. 직원 연수(교육)	4월 18일 7월 23일 8월 25~27일			경기도지회 경기도지회 국립중앙 청소년수련관	- 경기도지회 원장연수(수원) - 경기도지회 사무국장 연수 - 문화관광부 및 전국문화원연합회 - 주관 문화원직원 직무연수	사무국장 사무관사
9. 청사 회의 개최	12월 5일 12월 20일			의왕문화원	- 문화학교 운영에 따른 강사 - 교육 및 업무협조 회의 - 문화학교 추로식 협조 회의	강사 4명 사무국장 사무관사



※ 2003 의왕문화원 사업실적

사업 및 행사명	일시	장소	내용 및 추진결과	비고
10. 문화진흥학술회의 및 문화유적답사 참가	3월 12일 5월 16일 5월 22일 8월 10일 9월 21일 10월 19일 11월 16일	프레스센터 경기도 이천 경기도 파주시 화성시 군평리 의왕 내손, 양재 의왕 오전, 고신 의왕 무곡동	○ 문화, 역사만들기 토론회 ○ 향토문화유적답사 ○ 회원문화유적답사 및 회원 회계용사 ○ 여름맞이밤사 화일 및 회원 ○ 회원 및 임직원 35여명 ○ 회원 및 임직원 40여명 ○ 회원 및 임직원 40여명	원장 부원장 사무국장
11. 경기문화재단 학술 세미나	8월 25일 10월 22일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 부대공연작품 상반기 평가회 ○ 문예진흥지원금 공청회	관장 사무국장
12. 제4회 의왕단오제 (동백5월5일)	6월 4일	고천체육공원	○ 단오고사, 국악공연, 전통축구, 서민대회 ○ 의왕시민 1,000여명 참가 ○ 6/18 : 행사 평가회	의왕문화원
13. 제1회 여성 차예 대회	7월 19일	장계사 일원	○ 정일사근자, 산수화만 13명 참가	문화학교
14. 소년소녀합창단발표회	8월 20일 12월 19일	문화원 3층강당	○ 제6회 정기연주회 ○ 제7회 정기연주회 - 송년음악회	의왕문화원 소년소녀합창단
15. 제3회 백운서예대전 상상식 및 작품전시회	7월 - 9월	문화원 3층강당 지하전시실	○ 7/11 : 사전협의회 ○ 9/3 : 작품심사 ○ 9/6 : 현장취조 ○ 9/9 : 심사발표(입상 289명) ○ 9/29-10/3 : 시상식 및 작품전시	의왕문화원
16. 문화원개원1주년기념 기념식 및 행사	9월 23일	문화원 3층강당 지하주차장	○ 개원기념식 ○ 백운서예대전 시상식 및 전시회	의왕문화원
17. 제2회 백운예술제 (옛길걷기대회)	10월 9일	백운호수주변 (오래가, 동안, 백운호수)	○ 6/10 : 백운예술제 간담회 ○ 7/15 : 사전협의회 ○ 9/16 : 추진위원회 회의(1차) ○ 9/24 : 추진위원회 회의(2차) ○ 10/22 : 백운예술제 평가회	의왕문화원
18. 제7회 청소년음악회	11월 29일	문화원 3층강당	○ 11/3-5 김수마갈(12명 참가) ○ 김달 수상(사상, 의상, 교육장 문화원장, 학원연합회장님)	학원연합회
19. 송년음악회	12월 6일	문화원 3층강당	○ 뮤지컬 하이라이트(뮤즈) ○ 어울림 공연 ○ 시민 200명 공연 관람	문화의 집
20. 문화학교수료식 및 작품발표회	12월 27일	문화원 3층강당 문화원 2층전랑실	○ 한국문화학교 수료 : 67명 ○ 의왕문화학교 수료 18명 ○ 총 85명 수료 ○ 공로상 21명(상인9명, 아도12명) ○ 헌원 및 가족 150명 참석 및 관람	의왕문화원
21. 문화원-공무식	12월 31일	의왕문화원	○ 2003년도 문화원 업무 종료	

※ 의왕문화원 기구표



※ 임원현황

연번	직	급	성명	전화번호	핸드폰	주 소	비고
1	원 장		박용하				
2	부원장		김강호				
3	-		이동수				
4	이 사		정진우				
5	-		이규형				
6	-		마영득				
7	-		심희식				
8	-		음경배				
9	-		고정덕				
10	-		이덕형				
11	-		이종호				
12	-		박용일				
13	-		유찬상				
14	-		유지웅				
15	-		최동현				
16	-		김동호				
17	-		지영호				
18	-		윤용섭				
19	-		이양수				
20	-		박용철				
21	-		김삼돈				
22	-		신동교				
23	-		박용운				
24	갑 사		리진호				
25	-		백은석				

※ 회원현황

▷ 동별

(기준일 : 2003. 12. 31.)

동 별	인 구 수	비 회 원 수 (2002년 이전)	회 원 수 (2003년)	비 고 회원가입율(%)
고천,왕곡동	14,968명	34명	32명	0.23%
부곡동	38,048명	34명	46명	0.16%
오전동	39,555명	108명	133명	0.34%
대손동	54,139명	27명	40명	0.07%
철계, 포일, 학의동	6,688명	10명	18명	0.27%
기 타		41명	38명	타지역 거주, 익명가입
계	143,388명	254명	307명	0.21%

▷ 남, 여 및 가입유형별

(기준일 : 2003. 12. 31.)

구 분	고천동	부곡동	오전동	대손동	철계동	기 타	합 계
남	13	12	31	11	13	20	100
여	19	34	102	29	5	18	207
임 원	7	2	8	1	3	4	25
담 사	4	19	52	15	2	1	93
합 사	7	5	16			2	30
의 마 회		1	3	2		2	8
어 울 임	1		2			9	12
한국무술			1	3		4	9
기 타	11	14	21	6	9	7	68
소 계	30	41	104	27	14	29	245
서 예		4	5	4		1	14
사 군 자		1	7	2	2	6	18
민 요	1		3	2			6
산 수 화	1		3	5	2	2	13
음 불			11				11
소 계	2	5	29	13	4	9	62
합 계	32	46	133	40	18	38	307



※ 2003년도 향토문화연구소 사업실적

[illegible]

의왕문화원의 설립

의왕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전국 211개 지방문화원 중 1999년 8월 6일 경기도 지사로부터 인가되어 1999년 9월 29일 개원한 특별공익법인(정부재정 지원기관)이다. 또한 2000년 12월 2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준 문화학교를 인가 받았으며, 2001년 4월 6일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경기도지역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되었다. 본화관광부 관할 법인이며 국비와 지방비의 보조금을 받아 법률에 의해 지역고유의 문화개발, 보급보존, 전승 및 선양 사업과 향토사의 조사 연구 및 자료의 수집·보존을 하며 지역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활동과 문화활동 등을 하고 있다.

1999 / 02 / 23	문화원 설립 및 발기인 창립총회 - 위 원 장 : 박용하 - 추진위원 : 정진우, 김강호, 박용일, 이영수, 김광원, 황순환, 고영대 - 사무국장 : 윤정태 - 오전동 413-1 의왕복지회관 2층 전월바란
1999 / 03 / 10	설립기금 마련 논의
1999 / 05 / 30	의왕문화원 창립 발기인 총회 - 창관재액 - 이사선임 23명 - 임원선출 (원장 박용하, 부원을 김강호, 이영수, 김대 박용일, 이영수, 사무국장 윤정태)
1999 / 07 / 13	문화복지회관 개관식 의왕문화원 설립
2000 / 01 / 15	청소년상담실, 청소년공부방 위탁운영
2000 / 01 / 20	2000년도 이사회 정기총회(사업계획 세부안건 심의등)
2000 / 02 / 22	제1회 문화강좌 수요식
2000 / 02 / 23	제1회 운영위원회(유치유를 및 민족연구)
2000 / 03 / 03	2000 문화강좌 입학식
2000 / 03 / 29	제2차 운영위원회(문화원육성진흥조례(안)검토)
2000 / 06 / 22	제3차 운영위원회(3/4분기 사업계획 확정)
2000 / 08 / 25	제2기 전통문화강좌 수요식 문화원 개원1주년기념식
2000 / 10 / 20	문화원 조년소녀합창단 창단
2000 / 12 / 02	준문화학교 차정(경기도지사)
2001 / 01 / 31	문화원 2001 정기총회(사업계획 세부안건 심의)
2001 / 04 / 06	경기도 평생학습관 차정(경기도 교육청)
2001 / 08 / 30	의왕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설립

2003년도 주요행사 및 사업

- ★ 2003년도 1차 이사회(1월 21일)
- ★ 2003년도 정기총회(2월19일)
- ★ 향토문화연구소 정기총회(3월 5일)
 향토문화연구소 회의(총 4회 개최)
 -향토유적답사 관련 협의, "의왕의 인물과 유적속 찾아서" 제작 협의,
 문화유적 이월표 제작 간 협의
- ★ 의왕시 관내학교 우수졸업생 표창 (2월 6일 ~ 27일)
 - 관내 11개교 17명 시상
- ★ 웰생학습관 회의(총3회 개최)
 - 웰생학습관 운영과 정보센터 이용 제화, 학습조사, 관내사 원수
- ★ 2003년도 제2차 이사회(4월 3일)
- ★ 완창 연주(4월 18일)
 - 전국문화원 연합회 경기도지회 주최, 마포화 완창 창씨
- ★ 향토문화유적답사(5월 16일)
 - 경기도 이천, 임직원 및 관내 시민 80여명 참가
- ★ 씨름문화유적답사(5월 23일)
 - 경기도 파주시, 직원 및 관내 시민 90여명 참석
- ★ 관내문화유적답사(총3회 개최)
 - 1차 : 9월 21일 - 정계, 대손지역
 - 2차 : 10월 19일 - 오성, 고천지역
 - 3차 : 11월 16일 - 푸곡동 지역
 - 직원 및 시민들 총 140여명 참가. 관내에 있는 문화 유적지를 돌아다니며
 의왕시의 문화유적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 제4회 의왕단오제(6월 3일)

- 고천체육공원에서 단오고사, 국악공연, 전통마당, 씨름대회, 팔씨름, 캐이트볼, 휘호대회 등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관내시민 1,000여명이 참석하는 등 성황을 이루었다.

★ 의왕문화원 소년소녀합창단 6회 정기연주회(6월 20일)

- 의왕문화원 3층 강당에서 열렸으며, 관내시민과 어린이들 250여명이 관람하였다.

★ 제3회 백운서예대전 시상식 및 작품 전시회(7월-8월)

- 경기도 지역 내 서예 작품 및 휘호대회로 500여명이 참가, 289명이 입상하였으며 문화원 3층강당과 전시실에서 전시회를 열어 지역주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003년 제3차 어사회(7월5일)

★ 사무국장 연수(7월 23일)

- 경기도 사무국장이 경기도지하 사무국장연수에 참석

★ 2003년 제3차 어사회 및 선지관리위원회 개최(8월 21일)

★ 경기문화재단 학술 세미나(8월 25일)

- 부대공연작품 상반기 평가회 및 문예진흥지원금 공청회를 가졌으며 원장님과 사무국장님이 참석하였다.

★ 직원 연수(8월 25일 - 27일)

- 문화관광부 및 전국문화원연합회 주관 문화원직원 직무연수가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있었으며 이현정 관사가 참석

★ 의왕문화원 제2대 원장 선출(9월 19일)

- 박용하 원장이 재임

★ 의왕문화원 개원 4주년 기념식 및 기념행사(9월 29일)

- 의왕문화원 개원4주년 기념행사와 백운서예대전 시상식이 있었으며 시민200여명이 참석하여 관람함.

- ★ 제2회 백운예술제(10월 3일) -
 - 장소 : 백운호수 주변(오메기, 농업)
 - 행사내용 : 국악 및 민속악 공연, 풍물놀이,
의왕문화원에서는 옛길전거대회를 주관, 시민 500여명이 참가하여 큰 호응을 받았다.
- ★ 2008년 제5차 이사회 (10월 27일)
- ★ 제7회 청소년음악제(11월 29일)
 - 지역 청소년들의 음악적 재능을 살리고 칭찬하기 위해 해마다 열리는 행사로 이번 7회에는 61팀이 참가하여 21팀이 수상하였다.
- ★ 2008년 송년음악회(12월 6일)
 - 문화원 3층 대강당에서 열렸으며, 류지갑 하이라이프와 기타 불야의 어슬렁 들 가족음악회와 같이 모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 ★ 의왕문화원 소년소녀합창단 7회 정기연주회(12월 19일)
 - 81명으로 구성된 소년소녀합창단이 송년음악회를 열었다. 찬타 복장을 하고 노래를 부르며 시민들과 같이 하는 공연으로 지역주민 200여명이 관람하여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 ★ 2008년 제6차 이사회 및 송년회(12월 23일)
- ★ 문화학교 수료식 및 작품발표회(12월 27일)
 - 한국문화학교와 의왕문화학교 수료생 중 85명이 수료하고, 21명이 공로상을 수상하였으며 풍물반과 민요반이 발표를 하였다. 또한 2층 문화관람실에서는 서예, 자문자, 한수화, 아동미술반에서 작품전시를 하였으며 150여명의 수료생 및 가족이 관람하였다.
- ★ 문화원 통무식(12월 31일)
 - 2008년도 문화원 업무 종료

※ 의왕문화원 임원현황

연번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핸 드 폰	주 소
1	원 장	박용하			
2	부원장	김강호			
3	-	이동수			
4	이 사	장진우			
5	-	이규환			
6	-	마영득			
7	-	심희식			
8	+	윤정배			
9	+	고경덕			
10	-	이덕형			
11	+	이종훈			
12	+	박용일			
13	-	유관상			
14	-	류서룡			
15	-	최동현			
16	-	김동호			
17	-	지영호			
18	-	윤용섭			
19	-	이양수			
20	+	박용철			
21	-	김상돈			
22	-	신동교			
23	+	박용문			
24	집 사	이전호			
25	-	백운석			



※ 향토문화연구소 위원명단

연번	직 급	성 명	연 락 처	주 소	대 일
1	소 장	이명규			
2	부 소 장	황진우			
3	감 사	리진호			
4	연구위원	김강호			
5		박용익			
6		유지웅			
7		이중훈			
8		윤용섭			
9		박세훈			
10		류지영			
11		조창연			
12		윤정배			
13		황명춘			
14		윤도현			
15		조근구			
16		심종균			
17		이형철			
18		신철애			
19		조영선			
20		임영희			

※ 의왕문화원 문화학교 강좌소개

강좌명	내용	모집인원	강의시간	대상
아동 서예	서예 기초부터 작품까지	15명	수 금 17:00 - 18:00	초교1-6년
아동 동양화	바군자, 산수화	15명	토 14:00 - 16:00	초교4-6년
	기초부터 작품까지			
아동 미술	아동미술 거화년반	20명	화 목 15:30 - 16:30	초교1-3년
	아동미술 고학년반	20명	화 목 16:30 - 18:00	초교4-6년
아동 한자	교전강독	15명	수 금 18:00 - 19:00	초교1-6년
	국가공인 한자급수시험대비			
꽃 공예 (프레스플라워)	기초부터 작품까지 (아외수업반별)	신규	화 금 10:00 - 12:00	성인
풍선아트	기초부터 지도(주부대상)	10명	목 10:00 - 12:00	성인
	엄마와 함께하는 풍선공예	20명	화 15:00 - 17:00	부모, 아동
서예	한글·한문 기초부터 작품까지	추가	수 금 10:00 - 12:00	성인
스타일화	인물화, 초상화 그리기	신규	수 10:00 - 12:00	성인
(초상화)				
서양화	넷셀, 주제화, 유화 등	신규	화 10:00 - 12:00	성인
	기초부터 지도			
바군자	기초부터 작품까지	추가	목 토 10:00 - 12:00	성인
민요반	기초부터 지도	추가	월 수 13:00 - 15:00	성인
풍물반	기초부터 장단까지	추가	월 10:00 - 12:00	성인
산수화반	기초부터 작품까지	추가	목 14:00 - 17:00	성인
중국어기초	초급반	신규	수 금 17:00 - 18:30	중학교이상
영어회화반	초급반	추가	화 목 17:00 - 18:30	중학교이상
대일아트	기초부터 지도	신규	목 10:00 - 12:00	성인
캘리그래피, 오카리나	기초부터 지도	신규	금 10:00 - 12:00	성인
풍수지리반	풍수지리, 수택갈의	신규	목 10:00 - 12:00	성인



- ❶ 의왕문화원은 경기도청 지정 문화학교이며, 경기도교육청지정 평생학습관입니다.
- ❷ 수 강 료 : 3개월 과정(3개월 4만원 아동강과는 3개월 3만원)
강좌에 따라 수강료 다름. 회비는 비회원기준
회원은 감액 ***
- ❸ 납부방법 : 의왕문화원 납부 및 전화후 계좌입금 (☎ 456-4994)
의왕농협 211040-51-0081176 예금주 : 의왕문화원
- ❹ 접수기간 : 매월초 접수 기존강좌 : 수시접수
※정원미달시 폐강되며 수강료는 환불하여 드립니다.

* 문화원에서는 문화강좌 수강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역성외관 저층버스가 문화원을 경유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 유아(4세 이상)를 동행하시는 주부님들을 위한 유아 놀이방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를 동반하시는 주부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수강문의 : 의왕문화원 사무국

(☎ 456-4994/ 456-4998/ www.uwcc.or.kr)



의왕을 사랑하고 아끼시는 분이면 누구나 문화원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문화원 회원이 되신 분에는 문화원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적으로 초대될 수 있으며 의왕문화원 문화학교에서도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 회원님의 관심과 협조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미치는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을 고스란히 남겨주고 지역문화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의왕문화원은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사업의 활성화와 향토문화의 계승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일관 문화원으로서 지역문화의 확산을 도모하며 문화 창달에 더욱 주력할 것입니다. 회원님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 문화원 회원의 회비

연회비 - 10,000원 이상

문화원에 비치되어 있는 가입원서를 작성하여 주시고 회비는 문화원 사무국에 직접납부, 또는 계좌이체 (농협 211040 -51-077856 예금주 : 의왕문화원)로 납부하여 주시면 됩니다.

☞ 문화원 주소

우편번호 (437-822)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413-1

전화 (031)456-4994

FAX : (031)458-8045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국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항상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찾아오시는 길



편집 후기

우리는 지난해 의왕문화원이 개원한 후 처음으로 『儀旺文化』 창간호를 발행한 데 이어 이번에 그 두 번째의 『儀旺文化』 제2호를 간행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두드러지게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 중 하나는 가 지역마다 깊어져 사라져 가는 향토문화를 조사, 발굴하고 연구하여 이를 전승 발전시키려는 일환으로 그 지역의 전통과 역사를 담은 향토서 발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입니다. 우리 의왕시도 문화원 주관 하에 내년이면 의왕시사 편찬이 마무리되어 그 빛을 보게 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향토문화연구에 대한 열정은 미단 작개는 각 나라의 고유 문화뿐만이 아니라 크개는 국제적 안목에서도 비판자시로 전개되고 있는 추세라 여겨집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1972년 유네스코 정기총회에서 채택된 세계 자연 및 문화유산 보호협약에 따라 '세계문화유산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2004년 기준으로 754점 중 우리나라는 7점(불국사의 석굴암, 팔만대장경 보관, 종묘, 창덕궁, 수원 화성, 고령동(고찰·화순·강화), 정주역사지구)이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어 있는 것도 이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화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이상 앞으로 천년을 바라본다면 의왕문화유산이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될 기말이 전혀 없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문제는 전통적 문화수립에 대한 우리의 애호와 노력이 어떠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우리 의왕문화유산에 대한 아낌과 보존 발전시키는 과업은 매우 소중하지 않을 수 없으며, 바로 이러한 내용을 다루는 『의왕문화』가 앞으로 한 해 한 해 지령아 더해갈수록 우리 역사의 상실로 굳혀질 수 있는, 부게 있는 문화자가 되도록 의왕문화원 회원 및 향토문화연구소 회원들의 적극적 참여와 지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제는 연례적 행사로 자리잡혀지고 있는 그간의 단오제 행사라든가 의왕의 유적과 인물을 계획하여 홍보하고 있는 것이나 관내의 유적답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왕문화의 발전취를 살리고 연구하는 일이 우리 문화에 대한 확고한 전통의 자리 배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물론, 더욱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확장하여 나가는 데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왕문화』가 향토문화 연구에 많은 보탬이 되고 이바지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아울러 바쁜 중에서도 용고를 보내주신 여러 권자들과 편집 간사인 우정고등학교 조준구 선생님께 감심한 사의를 표하여, 또한 『儀旺文化』를 접하는 작개의 이집없는 지도와 편달이 있기를 간곡히 비는 바입니다.

편집위원장 義岩 李明奎

의왕문화 2호 편찬위원

편찬위원장	이명규
편 찬 위 원	김강호
	이종훈
	유지웅
	이덕형
	이택
	리진호
	조창연
	조준구

발행인 : 의왕문화원장 박용하

인쇄일 : 2004. 2.

발행일 : 2004. 2.

인쇄처 : 백운기획 (031-423-0666)



儀 旺 文 化 院
鄉 土 文 化 研 究 所

41317-8122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413-1

TEL:(031)456-4994

FAX:(031)458-8045

www.uwcc.or.kr